



2025. 10.

국회예산정책처 | 국세수입 전망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2025~2029

NABO Tax Revenue Outlook for 2026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6년 NABO 국제수입 전망: 2025~2029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총괄 | 상 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전망·작성 | 총괄 박정환
소득세 강민지, 박지원, 이정훈
법인세 박정환
부가가치세 김효경
기타 세목 장설희, 최천규, 박성은, 신미정 추계세제분석관

경제전망 |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김원혁, 이두영, 천경록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엄상미 행정실무원
손희정 자료분석연구원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은 국회의 2026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02) 6788-4834 | tp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2025~2029

2025.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5.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3년 및 2024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본예산을 각각 56.4조원, 30.8조원 하회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이전 재원이 감소하고, 정부지출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4년(336.5조원) 대비 35.8조원(10.6%) 증가한 372.3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국세수입이 추경예산(372.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국세수입은 396.1조원으로, 2025년 대비 23.8조원(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상승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여건 개선 등에 따라 소득세가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와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세 지속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에 따른 제도적 요인도 2026년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및 2026년을 포함한 2025~2029년간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전망과 비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 2026년 예산안 심의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및 관련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차 례

요 약 / 1

I. 2025년 국세수입 전망 / 1

1.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1
가. 거시경제 여건	1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4
2. 2025년 국세수입 전망	6
가. 총괄	6
나. 세목별 전망	9

II. 2026년 국세수입 전망 / 35

1. 2026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35
2. 2026년 국세수입 전망	39
가. 총괄	39
나. 세목별 전망	41
3.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61

III. 2025~2029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 65

1. 2025~2029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65
2.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68
가. 세목별 전망 방법	68
나.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70
3. 2025~2029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73

〈표 차례〉

[표 1] 2025년 거시경제 전망	3
[표 2] 2025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 누적 기준	4
[표 3] 2025년 8월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5
[표 4]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8
[표 5] 2025년 NABO 소득세 전망	9
[표 6]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11
[표 7]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14
[표 8] 취업자수 증감 추이	16
[표 9] 2025년 NABO 법인세 전망	17
[표 10] 2025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18
[표 11]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	19
[표 12]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요 업종별 세전순이익 추이	19
[표 13] 2025년 법인세 원천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20
[표 14] 2025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21
[표 15] 2025년 부가가치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22
[표 16] 2025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24
[표 17]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및 세수 감소액 추이	27
[표 18] 2025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28
[표 19] 2025년 8월 누적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	29
[표 20] 주요 국제기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35
[표 2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38
[표 22]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40
[표 23] 2026년 NABO 소득세 전망	41
[표 24]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42
[표 25] 2026년 NABO 법인세 전망	47
[표 26] 2025년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48
[표 27] 2025년 8월 누적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49
[표 28] 2026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51
[표 29] 2026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53

[표 30] 주요 에너지 품목 소비량 실적 및 전망	54
[표 31]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실적 및 전망	55
[표 32] 2026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56
[표 33]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상속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57
[표 34]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58
[표 35] 증권거래세율 연혁	60
[표 36] 2026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62
[표 37]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64
[표 38] 중기 NABO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지표	67
[표 39] 세목별 중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69
[표 40] 2025~2029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72
[표 41]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치	72
[표 42]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74
[표 43]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74

〈그림 차례〉

[그림 1]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10
[그림 2]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액 추이	10
[그림 3] 자영업자 가구의 전체 사업소득 증감률 추이	11
[그림 4] 2020~2024년 외화증권(주식) 예탁결제액(매도액) 추이	12
[그림 5] 주택 매매가격지수(전국) 추이	12
[그림 6] 지가지수(전국) 추이	12
[그림 7] 주택 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13
[그림 8] 토지 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13
[그림 9] 연도별 8월 누적 근로소득세수의 증감 추이	14
[그림 10]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	15
[그림 11]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18
[그림 12] 주요 품목의 수출 현황	18
[그림 13] 예금은행 수신금리 추이	20
[그림 14] 명목 민간소비 및 소비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23
[그림 15] 명목 설비투자 및 통관수출액 증감률 추이	23
[그림 16] 승용차 소매판매액지수 실적 및 전망	25
[그림 17] 담배판매량 실적 및 전망	25
[그림 18]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변동 추이	26
[그림 19]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27
[그림 20]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및 증여거래 추이	29
[그림 21] 2025년 일평균 거래대금·거래량·주가지수 추이	30
[그림 22]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31
[그림 23]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전망	42
[그림 24] 부동산 시장심리지수 추이	44
[그림 25] 매매가격 전망지수 추이	44
[그림 26] 2025년 유가증권 시장지표 추이	44
[그림 27] 해외주식 매도금액 추이	44
[그림 28]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실적 및 전망	45
[그림 29]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49

[그림 30] 순상품교역지수 추이	49
[그림 31] 반도체 가격(DDR4 8GB) 추이	49
[그림 32] 2025년 유가증권 상장법인 업종별 영업이익의 증감률 전망	50
[그림 33]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실적 및 전망	50
[그림 34]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실적 및 전망	52
[그림 35] 2025년 통관수출입 증감률 추이	52
[그림 36]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감률 실적 및 전망	55
[그림 37] 2022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변동률 추이	57
[그림 38] 2015~2024년 유가증권 변동률 추이	58
[그림 39] 부동산 증여거래 및 시장금리 추이	59
[그림 40] 주요 증시주변자금 추이	60
[그림 41]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	61

<2025~2029년 NABO 국세수입 전망>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2025	2026	2027	2028	2029	(단위: %)
						연평균 증감률 ¹⁾ (’25~’29년)
실질GDP 성장률	1.0	1.9	2.1	2.0	1.9	2.0
명목GDP 성장률	3.2	4.0	3.9	3.7	3.5	3.8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2	2.1	1.8	1.6	1.6	1.8
통관수출 증가율	0.3	△1.0	1.4	2.1	2.0	1.1
통관수입 증가율	△1.6	0.8	2.1	2.2	2.1	1.8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9	2.0	2.0	2.0	2.0
취업자수 증가(만명)	17.5	16.0	11.4	11.6	10.8	13.5 ²⁾
명목임금 상승률	3.3	3.2	3.3	3.3	3.3	3.2
국고채금리(3년)	2.4	2.4	2.5	2.5	2.4	2.4 ²⁾
회사채금리(3년, AA-)	3.0	2.8	2.9	2.9	2.8	2.9 ²⁾

주: 1)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2) ’25~’29년의 연평균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국세수입 전망 결과]

	2025	2026	2027	2028	2029	(단위: 조원, %)
						연평균 증가율 ²⁾ (’25~’29년)
NABO 국세	372.3	396.1	416.7	435.7	455.3	5.2
소득세	129.5	136.7	144.3	152.8	162.1	5.8
법인세	83.9	87.5	93.9	97.3	100.6	4.6
부가가치세	81.7	86.7	91.5	96.1	100.6	5.4
기타 ¹⁾	77.2	85.3	87.1	89.6	92.0	4.5
- 기타 소비세수	37.6	42.1	44.2	44.9	45.5	4.9
- 기타 자산세수	39.7	43.2	42.9	44.7	46.5	4.1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 세목의 합계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요 약

I. 2025년 국세수입 전망

2025년 국세수입은 372.3조원으로, 2024년 336.5조원 대비 35.8조원 (10.6%) 증가, 추경예산 372.1조원 대비 0.2조원(0.1%) 높을 전망

- 2025년 국세수입은 372.3조원으로, 2024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득세 증가를 중심으로 2024년 대비 35.8조원(10.6%) 증가할 전망
 - 2024년 대외경기 회복 등으로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전년 대비 21.4조원)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임금상승 및 개인사업자 소득 개선 등으로 소득세도 증가(12.1조원)
 - 최근 국세수입 실적 추이와 경제지표 전망 등을 바탕으로 NABO가 2025년 국세수입을 전망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372.1조원, 이하 '추경예산')은 달성 가능할 전망

- 소득세는 129.5조원으로, 임금상승 및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12.1조원(10.3%)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67.6조원으로, 상반기 특별급여 증가율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률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대비 6.5조원(10.7%) 증가할 전망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 ('23년) 2.5 ('24년) 2.9 ('25.1~6.) 3.6
 - 특별급여 증가율(전년 대비, %): ('23년) △2.9 ('24년) 0.4 ('25.1~6.) 8.1
 - 양도소득세는 19.9조원으로, 해외 주식분 양도소득세 호조와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2024년 대비 3.2조원(19.2%) 증가할 전망
 - 해외주식 매도금액(결제 기준): ('23년) 121억달러 ('24년) 217억달러
 - 주택 매매거래량(전국, 종합주택): ('24. 1~8.) 44.0만호 ('25. 1~8.) 46.9만호

- 종합소득세는 21.3조원으로, 성실신고확인신고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1.8조원(9.3%) 증가할 전망
 - 2024년 분기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4.1Q) 12.1 (2Q) 4.0 (3Q) 0.5 (4Q) 4.2
- 법인세는 83.9조원으로, 2024년 대외수요 회복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으로 2024년 대비 21.4조원(34.2%)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60.6조원으로, 세계경제 성장 및 AI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업종 등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2024년 대비 21.2조원(53.8%)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23년) Δ 32.4 ('24년) 83.6
 - 원화기준 통관수출 증감률(전년 대비, %): ('23년) Δ 6.5, ('24.上) 13.7 ('24.下) 12.2
 - 법인세 원천분은 23.3조원으로, 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신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증가세가 제약되어 2024년 대비 0.2조원(0.7%) 증가할 전망
 - 일반법인(금융업 제외) 금융자산(조원): ('24년) 4,245.2 ('25.上) 4,400.4
 -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 ('24.4Q) 2.44 ('25.1Q) 2.3 ('25.2Q) 2.15
- 부가가치세는 81.7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등으로 2024년 대비 0.6조원(Δ 0.7%) 감소할 전망
 - 민간소비는 국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작년 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
 - 명목 민간소비 증가률(전년동기 대비, %): ('24.上) 3.2 ('24.下) 2.9 ('25.上) 2.5
 -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로 인한 환급 확대로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4.4Q) 8.0 ('25.1Q) 9.4 (2Q) 4.5
 - 원화기준 통관수출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4.上) 13.7 ('24.下) 12.2 ('25.上) 5.6
- 기타 소비세수¹⁾는 37.6조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심으로 2024년 대비 1.8조원(5.1%) 증가할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2조원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일부 환원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1.8조원(15.6%) 증가할 전망

1)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 유류세 탄력세율(원/ℓ):
 ('24.1~6.) 휘발유 396.7, 경유 238 ('24.7~10.) 휘발유 423, 경유 263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25.5~10.) 휘발유 476, 경유 319
 ('25.11~12.) 휘발유 492, 경유 337.5
- 관세는 7.4조원으로,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가 및 할당관세²⁾ 운용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0.4조원(6.3%) 증가할 전망
 - 원화기준 통관수입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4.下) 8.2 ('25.上) 4.1
 - 할당관세 운용 품목(개): ('23년) 117 ('24년) 125 ('25.9.) 106
- 개별소비세는 8.3조원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발전용 유연탄 등 과세대상 품목의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0.4조원(△4.2%) 감소할 전망
 -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4.上) 3.2 ('24.下) 2.9 ('25.上) 2.5
 -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만톤): ('24년) 6,451 ('25년^e) 6,038 (전년 대비 △6.4%)
- 기타 자산세수³⁾는 39.7조원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세율인하와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가 감소함에 따라 2024년 대비 1.0조원(2.7%) 증가에 그칠 전망
 - 상속세 및 증여세(16.5조원)와 종합부동산세(4.4조원) 등은 '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라 2024년 대비 각각 1.2조원(7.5%), 0.2조원(5.3%) 증가할 전망
 - '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증감률⁴⁾ 추이(%): 토지 2.7, 주택 3.3
 - 반면, 증권거래세는 3.2조원으로,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감소와 증권거래세율 인하(△0.03%p) 영향으로 2024년 대비 1.6조원(△33.4%) 감소할 전망
 -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1~8월) △30.5
 -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 0.03 → 0, 코스닥 0.18 → 0.15

2)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의 목적으로 특정품목의 관세를 기본세율 대비 40%p 범위에서 조정하는 제도이다.〔관세법〕 제71조

3)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4) 공시가격 증감률은 주택의 경우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감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을, 토지의 경우 지역별 표준지, 개별토지 공시가격 증감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필지수)을 의미한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36.5	372.1	372.3	35.8	10.6	0.2	0.1
일반회계	326.2	361.5	360.6	34.4	10.5	△0.9	△0.2
내국세	298.3	329.2	330.1	31.8	10.7	0.9	0.3
1. 소득세	117.4	126.8	129.5	12.1	10.3	2.7	2.1
2. 법인세	62.5	83.6	83.9	21.4	34.2	0.3	0.4
3. 상속세 및 증여세	15.3	15.4	16.5	1.2	7.5	1.0	6.5
4. 부가가치세	82.2	83.3	81.7	△0.6	△0.7	△1.7	△2.0
5. 개별소비세	8.7	8.7	8.3	△0.4	△4.2	△0.5	△5.2
6. 증권거래세	4.8	3.8	3.2	△1.6	△33.4	△0.7	△17.6
7. 인지세	0.8	0.9	0.8	△0.1	△8.7	△0.1	△12.6
8. 과년도수입	6.5	6.5	6.3	△0.2	△3.1	△0.2	△2.8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4.0	13.2	1.8	15.6	△0.8	△6.0
관세	7.0	8.4	7.4	0.4	6.3	△1.0	△11.8
교육세	5.4	5.8	5.5	0.1	2.4	△0.3	△4.7
종합부동산세	4.2	4.1	4.4	0.2	5.3	0.3	6.9
특별회계	10.4	10.6	11.7	1.4	13.3	1.1	10.4
주세	3.3	3.2	3.2	△0.1	△4.3	△0.02	△0.8
농어촌특별세	7.0	7.4	8.5	1.5	21.7	1.1	15.3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II. 2026년 국세수입 전망

2026년 국세수입은 396.1조원으로, 2025년 전망 372.3조원 대비 23.8조원(6.4%) 증가, 정부 예산안⁵⁾ 390.2조원 대비 5.9조원(1.5%) 높을 전망

1. 2026년 국세수입 전망

- 2026년 국세수입은 396.1조원으로, 소득 및 소비여건의 개선과 2025년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에 기인하여 2025년 전망⁶⁾ 대비 23.8조원(6.4%) 증가할 전망
 - 임금상승 등 소득 여건 개선으로 소득세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2025년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전망
 -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율 인상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도 세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소득세는 136.7조원으로, 임금상승,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사업소득 증가,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2025년 대비 7.2조원(5.5%)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72.3조원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4.7조원(7.0%) 증가할 전망
 - 임금근로자 증감(전년 대비, 만명): ('24년) 21.4 ('25년^e) 24.2 ('26년^e) 22.8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 ('24년) 2.9 ('25년^e) 3.3 ('26년^e) 3.2
 - 종합소득세는 22.6조원으로, 민간소비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 대비 1.3조원(6.1%)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명목/실질, %): ('24년) 3.0/ 1.1 ('25년^e) 3.2/ 1.4
 - 양도소득세는 20.7조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 기인하여 2025년 대비 0.8조원(4.1%) 증가할 전망

5) 이하 '예산안'은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안'을 의미한다.

6) '2025년 전망'은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2025년'으로 지칭한다.

-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 ('25.1월) 85.5 → (5월) 98.4 → (9월) 101.6
- 법인세는 87.5조원으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증가에 따라 2025년 대비 3.6조원(4.3%)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64.8조원으로, 2025년 반도체 등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 실적의 증가 전망과 법인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4.1조원(6.8%)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24년) 83.6 ('25.上) 7.1
 - 2025년 상장사 영업이익 증권사 컨센서스 증감률(전년 대비, %): 19.8
 - 법인세 원천분은 22.7조원으로, 금리 하락 전망 등에 따라 2025년 대비 0.6조원(△2.4%) 감소할 전망
 - 회사채금리 추이(3년물, AA-, %): ('24년) 3.7 ('25년^e) 3.0 ('26년^e) 2.8
- 부가가치세는 86.7조원으로, 내수회복에 따라 민간소비가 개선될 전망이나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감소 전망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제약되어 2025년 대비 5.0조원(6.1%) 증가할 전망
 - 대내 불확실성 축소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개선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민간소비 증가 예상
 -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전년 대비, %): ('25년^e) 3.2 ('26년^e) 3.5
- 기타 소비세수는 42.1조원으로, 소비여건 개선과 유류세 탄력세율 회복 등에 따라 2025년 대비 4.5조원(12.0%) 증가할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16.2조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을 전제로 2025년 대비 3.0조원(23.0%) 증가할 전망
 - 개별소비세는 9.1조원으로, 내수회복 등으로 과세대상 물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2025년 대비 0.8조원(10.0%) 증가할 전망
 - 다만, 관세(7.3조원)는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감소 전망에 따라 2025년 대비 0.1조원(△1.1%) 감소할 전망
 -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감률(전년 대비, %): ('25년^e) 1.1 ('26년^e) △1.6

- 기타 자산세수는 43.2조원으로, 증권거래세율 인상에 따른 제도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2025년 대비 3.5조원(8.9%) 증가할 전망
 - 증권거래세는 5.5조원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상(+0.05%p)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2.3조원(73.5%) 증가할 전망
 -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 0 → 0.05, 코스닥 0.15 → 0.20
 - 상속세 및 증여세(17.1조원)와 종합부동산세(4.7조원) 등은 자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2025년 대비 각각 0.6조원(3.7%), 0.2조원(5.6%) 증가할 전망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72.3	390.2	396.1	23.8	6.4	5.9	1.5
일반회계	360.6	378.6	384.0	23.4	6.5	5.4	1.4
내국세	330.1	343.9	349.6	19.5	5.9	5.7	1.6
1. 소득세	129.5	132.1	136.7	7.2	5.5	4.6	3.5
2. 법인세	83.9	86.5	87.5	3.6	4.3	0.9	1.1
3.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0	17.1	0.6	3.7	0.04	0.2
4. 부가가치세	81.7	86.6	86.7	5.0	6.1	0.1	0.1
5. 개별소비세	8.3	9.4	9.1	0.8	10.0	△0.3	△2.7
6. 증권거래세	3.2	5.4	5.5	2.3	73.5	0.1	2.3
7. 인지세	0.8	0.8	0.8	△0.01	△0.8	△0.01	△0.9
8. 과년도수입	6.3	6.1	6.3	△0.1	△1.2	0.1	2.3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6.2	3.0	23.0	△0.2	△1.3
관세	7.4	7.2	7.3	△0.1	△1.1	0.1	1.6
교육세	5.5	6.4	6.2	0.7	13.3	△0.2	△3.2
종합부동산세	4.4	4.6	4.7	0.2	5.6	0.03	0.6
특별회계	11.7	11.6	12.1	0.4	3.5	0.5	4.2
주세	3.2	3.1	3.2	△0.01	△0.4	0.03	0.8
농어촌특별세	8.5	8.5	9.0	0.4	4.9	0.5	5.5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396.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90.2조원)을 5.9조원(1.5%) 상회할 전망
 - 이러한 차이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⁷⁾ 차이에 주로 기인하며,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게 추계한 것도 일부 기인
 -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4.0%)는 정부(3.8%)보다 0.2%p 높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외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임금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26년 세수효과: (NABO) 3.1조원, (정부) 2.5조원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4 실적	2025 전망		2026 전망	
		정부 (‘25.8.)	NABO (‘25.9.)	정부 (‘25.8.)	NABO (‘25.9.)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6.2 (2.0)	3.2 (0.9)	3.2 (1.0)	3.8 (1.7)	4.0 (1.9)
민간소비 증가율	1.1	1.3	1.3	1.6	1.7
설비투자 증가율	1.7	2.0	2.8	1.5	1.7
건설투자 증가율	△3.3	△8.2	△8.2	2.7	3.2
경상수지	990	950	1,100	800	900
통관수출 증가율	8.1	0.2	0.3	△0.5	△1.0
통관수입 증가율	△1.7	△0.6	△1.6	0.5	0.8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0	2.0	1.9	1.9
취업자수 증감	15.9	19.7	17.5	17.3	16.1
명목임금 상승률	2.9	3.2	3.3	2.5	3.2

주: GDP 구성요소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7) 이하 2026년 정부의 경제지표 전망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인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기준이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지표는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과 KDI의 경제전망(2025.8.)을 종합하여 반영함에 따라, 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과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전망간 차이가 큰 세목은 소득세(4.6조원), 법인세(0.9조원) 등
 - 소득세(4.6조원)의 경우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근로소득세(정부 예산안 대비 +3.8조원)를 높게 전망
 - 법인세(0.9조원)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반도체 등 업종의 주요 법인의 2025년 하반기 실적 증가세 확대 등을 반영한 것과 세법개정 세수효과 전망 차이도 일부 기인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비교 (B-A)	
	2026 예산안 (A)	증감률 (2025 전망 ¹⁾ 대비)	2026 전망 (B)	증감률 (2025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90.2	5.5	396.1	6.4	5.9	1.5
일반회계	378.6	5.7	384.0	6.5	5.4	1.4
내국세	343.9	5.0	349.6	5.9	5.7	1.6
1. 소득세	132.1	2.9	136.7	5.5	4.6	3.5
2. 법인세	86.5	3.5	87.5	4.3	0.9	1.1
3. 상속세 및 증여세	17.0	5.3	17.1	3.7	0.04	0.2
4. 부가가치세	86.6	7.0	86.7	6.1	0.1	0.1
5. 개별소비세	9.4	13.4	9.1	10.0	△0.3	△2.7
6. 증권거래세	5.4	71.3	5.5	73.5	0.1	2.3
7. 인지세	0.8	△0.3	0.8	△0.8	△0.01	△0.9
8. 과년도수입	6.1	0.0	6.3	△1.2	0.1	2.3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25.5	16.2	23.0	△0.2	△1.3
관세	7.2	△2.4	7.3	△1.1	0.1	1.6
교육세	6.4	11.5	6.2	13.3	△0.2	△3.2
종합부동산세	4.6	0.9	4.7	5.6	0.03	0.6
특별회계	11.6	△0.5	12.1	3.5	0.5	4.2
주세	3.1	△1.8	3.2	△0.4	0.03	0.8
농어촌특별세	8.5	0.03	9.0	4.9	0.5	5.5

주: 1) 2024년 9월 정부가 재추계한 전망치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III. 2025~2029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국세수입은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

1.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 국세수입은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
 - 2026년 이후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율 인상과 같은 제도적 요인도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6~'29년간 총 28.9조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추계됨
- 소득세는 2025년 129.5조원에서 2029년 162.1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등 고용지표의 안정적인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
 - 고용지표 증가율 전망('25~'29년 연평균): 1인당 임금 3.2%, 임금근로자수 0.9%
 -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개선 및 명목GDP 성장 등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로 연평균 4.9% 증가 예상
 - 명목 민간소비 및 명목GDP 성장률 전망('25~'29년 연평균, %): 3.7 / 3.8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법인세는 2025년 83.9조원에서 2029년 100.6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반도체 업종 등의 법인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라 2025~2027년간 신고분을 중심으로 8.2% 증가한 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2028년 이후 연 4%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법인세 신고분 연평균 증감률 추이(%): ('25~'27년) 8.2, ('28~'29년) 4.2
- 법인세 원천분은 2026년 금리 인하 이후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7년 이후 연 1%대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회사채금리 추이(3년물, AA-, %): ('25년) 3.0 ('26년) 2.8 ('27~'29년) 2.9

□ 부가가치세는 2025년 81.7조원에서 2029년 100.6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내수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명목GDP 성장률(연평균 3.8%)을 상회하는 견조한 증가세 예상
 -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25~'29년 연평균, %): 3.7

□ 기타 세목은 2025년 77.2조원에서 2029년 92.0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전망

- 기타 소비세수는 민간소비 증가 및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의 영향으로 2025년 37.6조원에서 2029년 45.5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으로 2025년 39.7조원에서 2029년 46.5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전망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2025	2026	2027	2028	2029	(단위: 조원, %) 연평균 증가율 ²⁾ ('25~'29년)
NABO 국세	372.3	396.1	416.7	435.7	455.3	5.2
소득세	129.5	136.7	144.3	152.8	162.1	5.8
법인세	83.9	87.5	93.9	97.3	100.6	4.6
부가가치세	81.7	86.7	91.5	96.1	100.6	5.4
기타 ¹⁾	77.2	85.3	87.1	89.6	92.0	4.5
- 기타 소비세수	37.6	42.1	44.2	44.9	45.5	4.9
- 기타 자산세수	39.7	43.2	42.9	44.7	46.5	4.1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 세목의 합계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5~2029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을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2025년 372.1조원(추경예산 기준)에서 2029년 457.1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정부 계획 대비 5년 합계 10.5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
 - 정부의 2025년 재추계를 기준으로 비교시 정부 전망 대비 5년 합계 12.6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차이는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6년의 세수 차이와 양 기관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차이 등에 주로 기인
 - ('26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수회복에 따른 명목GDP 성장률과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를 정부보다 높게 추정
 - ('27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명목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양 기관의 세수전망 차이는 축소되다가 2029년 정부 전망(457.1조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455.3조원)을 상회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단위: 조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25~'29년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72.3 (10.6)	396.1 (6.4)	416.7 (5.2)	435.7 (4.6)	455.3 (4.5)	(5.2)	
	명목GDP 성장률	3.2	4.0	3.9	3.7	3.5	(3.8)	
정부	국세수입	추경예산기준	372.1 (10.6)	390.2 (4.9)	412.1 (5.6)	434.1 (5.4)	457.1 (5.3)	(5.3)
		재추계기준	369.9 (9.9)	390.2 (5.5)	412.1 (5.6)	434.1 (5.4)	457.1 (5.3)	(5.4)
	명목GDP 성장률	3.2	3.8 ¹⁾	3.9	4.0	4.1	(4.0)	
NABO - 정부	추경예산기준	0.2	5.9	4.6	1.5	△1.7	[10.5]	
	재추계기준	2.4	5.9	4.6	1.5	△1.7	[12.6]	

주: 1.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 []는 '25~'29년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간 국세수입 전망차이의 총합

1) 명목GDP 성장률은 정부 예산안 부속서류의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I. 2025년 국제수입 전망

1. 2025년 국제수입 전망의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10월 현재 시점의 거시경제 여건과 2025년 8월까지의 국제수입 수납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국제수입 규모를 전망하였다. 이하에서는 2025년 국제수입 전망의 전제인 거시경제 여건과 2025년 국제수입 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거시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우리 경제는 2025년 상반기 중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성장이 정체됐다. 다만, 2분기 들어서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수출과 제조업의 증가율이 소폭 높아지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하반기에는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의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내수관련 업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조업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수출과 더불어 흐름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는 2025년 1.0% 성장할 전망이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025년 상반기 중 0.7% 증가하여 2024년 하반기의 1.2%보다 성장세가 낮아졌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대내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지원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임금 상승률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예정이다. 2025년 연간으로는 1.4%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2025년 상반기 중 4.5% 증가하였다. 반도체 제조장비와 운송장비 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김원희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런 수요 확대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은 자본재수입 증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 연간으로는 2.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정부의 R&D 분야 재정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5년 상반기에 1.9% 성장하였다. 하반기에는 IT 경기 호조 등으로 연구개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면서 2025년 연간으로는 2.8% 성장할 전망이다.

대외거래

2025년 상반기 통관수출액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용 SSD 등 고성능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석유제품 수출이 둔화되고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액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하반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다 하더라도, 2025년 연간 통관수출액은 0.3%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2025년 상반기 통관수입액은 석유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하였다. 하반기에는 내수 개선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쇄되어 2025년 연간으로는 1.6%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202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2.1% 상승하였다. 6~7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작물 피해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 측면의 압박과 전년도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목표 인플레이션(2%)보다는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OPEC+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원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연간으로는 2.0% 상승할 전망이다.

고용

취업자 수는 2025년 상반기에 18.1만명 증가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결과이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져

2025년 연간으로 취업자 수는 17.5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은 특별급여 상승 등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에 3.6% 상승하였다. 다만,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저조한 경제성장률, 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고용 증가 등으로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

2024년 3.1%를 기록하였던 국고채금리(3년)는 2025년 상반기 2.5%로 0.6%p 낮아졌다. 이는 국내 경기둔화 및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국고채금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 하반기에도 국고채금리는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등이 지속되며 연평균 2.4%로 전망된다.

[표 1] 2025년 거시경제 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성장률	2.0	0.3	1.7	1.0
민간소비	1.1	0.7	2.0	1.4
설비투자	1.7	4.5	1.1	2.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3.6	2.8
경상수지(억달러)	990	494	607	1,100
통관수출	8.1	0.0	0.7	0.3
통관수입	△1.7	△1.6	△1.5	△1.6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4.1	2.6	1.8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1	1.8	2.0
취업자수 증감(만명)	15.9	18.1	16.9	17.5
실업률	2.8	3.1	2.7	2.9
명목임금 상승률	2.9	3.6	2.9	3.3
국고채금리(3년)	3.1	2.5	2.3	2.4
회사채금리(3년, AA-)	3.7	3.1	2.8	3.0
명목GDP 성장률	6.2	2.9	3.5	3.2

주: 2024년 및 2025년 상반기는 실적치, 2025년 하반기 및 연간 자료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2025년 국세수입 전망에 앞서 금년의 세수 흐름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260.8조원으로 전년동기(232.2조원) 대비 28.6조원(12.3%) 증가하였다.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은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국세수입 실적을 월별로 살펴보면, 2025년 2월에는 특별급여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실적을 중심으로 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3월부터는 2024년 법인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 신고분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표 2] 2025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 누적 기준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24	45.9	58.0	84.9	125.6	151.0	168.6	208.8	232.2
2025	46.6	61.0	93.3	142.2	172.3	190.0	232.6	260.8
증감 (%)	0.7 (1.5)	3.0 (5.1)	8.4 (9.9)	16.6 (13.2)	21.3 (14.1)	21.5 (12.7)	23.8 (11.4)	28.6 (12.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세목별로 세수 실적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86.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9.6조원(12.5%) 증가하였다. 소득세는 주요 세부세목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우선 근로소득세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특별급여 지급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원(12.1%)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5월 해외주식 양도분 신고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원(24.3%)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4조원(12.8%) 증가했다.

법인세는 8월 누적 기준 63.4조원이 수납되어 국세 세목 중 가장 큰 증가폭(전년동기 대비 17.8조원, 39.1%)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2024년 법인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7.4조원(58.2%) 증가하였다. 법인세 원천분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법인 금융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국세수입 실적 추이

전년동기 대비 0.4조원(2.7%)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는 8월까지 57.7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2조원(△2.1%) 감소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명목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타 세목 중에는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세율 인하¹⁾와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3조원(△37.9%) 감소하였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²⁾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3조원(18.1%) 증가하였다.

[표 3] 2025년 8월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당월			8월 누적				'24 실적	'25 추경예산
	'24.8	'25.8	증감액	'24.1~8	'25.1~8	증감액	증감률		
국세	23.4	28.2	4.8	232.2	260.8	28.6	12.3	344.1	367.3
○ 소득세	8.9	9.6	0.6	77.1	86.7	9.6	12.5	115.8	125.8
- 종합소득	0.3	0.7	0.4	11.3	12.7	1.4	12.8	21.4	23.1
- 양도소득	1.9	2.1	0.1	11.4	14.2	2.8	24.3	17.6	22.4
- 근로소득	5.3	5.3	0.1	40.2	45.1	4.9	12.1	59.1	62.0
○ 법인세	12.6	15.9	3.4	45.6	63.4	17.8	39.1	80.4	77.7
- 신고분	10.9	14.5	3.6	29.9	47.3	17.4	58.2	60.4	56.8
- 원천분	1.7	1.4	△0.3	15.7	16.1	0.4	2.7	20.0	20.8
○ 상속세 및 증여세	1.6	1.4	△0.2	10.7	11.6	0.9	8.5	14.6	14.7
○ 부가가치세	△3.9	△3.6	0.3	59.0	57.7	△1.2	△2.1	73.8	81.4
○ 증권거래세	0.5	0.4	△0.1	3.5	2.2	△1.3	△37.9	6.1	5.4
○ 교통·에너지·환경세	0.9	1.2	0.3	7.3	8.6	1.3	18.1	10.8	15.3
○ 관세	0.6	0.6	0.1	4.4	4.9	0.5	11.6	7.3	8.9
○ 기타	2.3	2.8	0.5	24.7	25.6	1.0	4.0	35.2	38.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유가증권('24년) 0.03 → ('25년) 0, 코스닥('24년) 0.18 → ('25년) 0.15

2) 유류세 탄력세율(원/ℓ): (23.1.~24.6.) 휘발유 396.7, 경유 238, (24.7~10.) 휘발유 423, 경유 263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25.5.~10.) 휘발유 476, 경유 319, (25.11.~12.) 휘발유 492, 경유 337.5

2. 2025년 국세수입 전망

가. 총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세수입을 372.3조원으로, 2024년(336.5조원) 대비로는 35.8조원(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증가는 2024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임금상승,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은 제2회 추경예산(372.1조원, 이하 '추경예산')을 0.2조원(0.1%)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³⁾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소득세는 129.5조원으로, 2024년(117.4조원) 대비 12.1조원(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세부세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세가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임금상승률 확대⁴⁾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6.5조원(10.7%)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⁵⁾ 등에 따라 2024년 대비 3.2조원(19.2%)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신고자 및 납부세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납세액 증가 등에 따라 2024년 대비 1.8조원(9.3%)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법인세는 83.9조원으로, 2024년(62.5조원) 대비 21.4조원(3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신고분은 법인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21.2조원(53.8%)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법인세 신고분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의 법인 영업실적은 세계경제 성장 및 AI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등에 기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⁶⁾하였다. 또한 법인세 원천분도 법인 예금자산 증가⁷⁾ 등에 따른 법인 이자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2024년 대비 0.2조원(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3) 한편,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2025.9.)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69.9조원으로 추경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372.3조원) 보다 2.4조원 낮은 수준이다.

4)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 ('23년) 2.5 ('24년) 2.9 ('25.1~6.) 3.6

특별급여 증가율(전년 대비, %): ('23년) △2.9('24년) 0.4 ('25.1~6.) 8.1

5) 해외주식 매도금액(결제 기준): ('23년) 121억달러 ('24년) 217억달러

6)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23년) △32.4 ('24년) 83.6

7) 일반법인(금융업 제외) 금융자산(조원): ('24년) 4,245.2 ('25.1.) 4,400.4

2025년 부가가치세는 81.7조원으로, 2024년(82.2조원) 대비 0.6조원(△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작년 4분기 이후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⁸⁾ 이러한 가운데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같은 세수감소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기타 소비세수⁹⁾는 2024년 대비 1.8조원(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기타 소비세수가 민간소비 회복세 부진으로 증가세가 미약할 전망이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일부 환원¹⁰⁾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24년 대비 1.8조원(15.6%) 증가하며 기타 소비세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기타 자산세수¹¹⁾는 사망자수 증가와 증여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와 유가증권 시장(KOSPI)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증가¹²⁾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1.0조원(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감소¹³⁾와 증권거래세율 인하¹⁴⁾ 등 시장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2024년 대비 1.6조원(△3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8)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4.上) 3.2 ('24.下) 2.9 ('25.上) 2.5

9)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10) 유류세 탄력세율(원/ℓ): ('24.1~6.) 휘발유 396.7, 경유 238, ('24.7~10.) 휘발유 423, 경유 263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25.5~10.) 휘발유 476, 경유 319, (25.11~12.) 휘발유 492, 경유 337.5

11)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12)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거래시 거래대금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다.

13)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1~8월) △30.5

14)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 0.03 → 0, 코스닥 0.18 → 0.15

[표 4]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36.5	372.1	372.3	35.8	10.6	0.2	0.1
일반회계	326.2	361.5	360.6	34.4	10.5	△0.9	△0.2
내국세	298.3	329.2	330.1	31.8	10.7	0.9	0.3
1. 소득세	117.4	126.8	129.5	12.1	10.3	2.7	2.1
2. 법인세	62.5	83.6	83.9	21.4	34.2	0.3	0.4
3. 상속세 및 증여세	15.3	15.4	16.5	1.2	7.5	1.0	6.5
4. 부가가치세	82.2	83.3	81.7	△0.6	△0.7	△1.7	△2.0
5. 개별소비세	8.7	8.7	8.3	△0.4	△4.2	△0.5	△5.2
6. 증권거래세	4.8	3.8	3.2	△1.6	△33.4	△0.7	△17.6
7. 인지세	0.8	0.9	0.8	△0.1	△8.7	△0.1	△12.6
8. 과년도수입	6.5	6.5	6.3	△0.2	△3.1	△0.2	△2.8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4.0	13.2	1.8	15.6	△0.8	△6.0
관세	7.0	8.4	7.4	0.4	6.3	△1.0	△11.8
교육세	5.4	5.8	5.5	0.1	2.4	△0.3	△4.7
종합부동산세	4.2	4.1	4.4	0.2	5.3	0.3	6.9
특별회계	10.4	10.6	11.7	1.4	13.3	1.1	10.4
주세	3.3	3.2	3.2	△0.1	△4.3	△0.02	△0.8
농어촌특별세	7.0	7.4	8.5	1.5	21.7	1.1	15.3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2025년 소득세는 129.5조원으로, 2024년(117.4조원) 대비 12.1조원(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126.8조원을 2.7조원(2.1%)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수의 높은 증가세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지급액 확대 등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 및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 상승 등에 기인한다.

[표 5] 2025년 NABO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추경예산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17.4	126.8	129.5	12.1	10.3	2.7	2.1
신고분	36.2	41.5	41.2	5.0	13.8	△0.2	△0.6
종합소득세	19.5	22.1	21.3	1.8	9.3	△0.7	△3.2
양도소득세	16.7	19.4	19.9	3.2	19.2	0.5	2.4
원천분	81.2	85.3	88.3	7.1	8.7	2.9	3.5
이자소득세	7.2	6.3	7.1	△0.1	△1.8	0.8	11.9
배당소득세	4.3	4.7	4.4	0.1	2.7	△0.3	△6.3
사업소득세	4.7	5.1	5.0	0.3	6.3	△0.1	△2.5
근로소득세	61.0	64.7	67.6	6.5	10.7	2.8	4.4
연금소득세	0.6	0.7	0.7	0.1	22.1	0.0	△1.3
기타소득세	2.4	2.7	2.4	0.0	2.0	△0.3	△9.9
퇴직소득세	1.1	1.2	1.2	0.1	10.7	0.0	4.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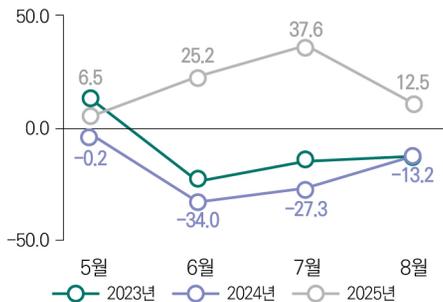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min1231@assembly.go.kr, 6788-4746) 종합소득세, 소득세 기타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662) 근로소득세, 소득세 기타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2025년 종합소득세는 21.3조원으로, 2024년(19.5조원) 대비 1.8조원(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22.1조원)을 0.7조원(△3.2%) 하회한다. 2025년 종합소득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2024년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12.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4조원(12.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월별 세수실적(당월분)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5월 전년동월 대비 6.5% 증가하였는데, 수입규모가 일정규모(업종별 5억원~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신고자'의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6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2% 증가하여 5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후 종합소득세 분납분이 수납되는 7~8월에도 종합소득세 수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졌다.

[그림 1]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그림 2]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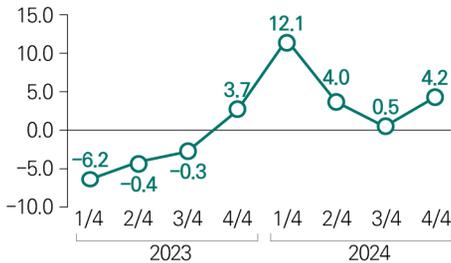
주: 월별 종합소득세수 실적치에, 종합소득세에서 지급되는 EITC, CTC를 가산한 수치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별 세수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증가 원인은 2025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24년 귀속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2.1%이나, 2분기 4.0%, 3분기 0.5%, 4분

기 4.2%로 나타난다. 다만, 1분기의 두자릿수 증가율은 2023년 1분기의 감소세(△6.2%)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 및 2분위는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지만, 3분위 이상에서는 대체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자영업자 가구의
전체 사업소득 증감률 추이
(단위: %)



[표 6]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평균	12.1	4.0	0.5	4.2
- 1분위	36.1	57.0	△8.9	4.5
- 2분위	0.3	△16.3	△5.8	△3.3
- 3분위	4.1	5.9	10.8	7.1
- 4분위	17.6	7.9	2.5	7.8
- 5분위	12.1	2.9	△2.2	2.2

주: 2024년 4분기 기준 각 분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분위 4.3만원, 2분위 33.5만원, 3분위 131.2만원, 4분위 250.1만원, 5분위 581.4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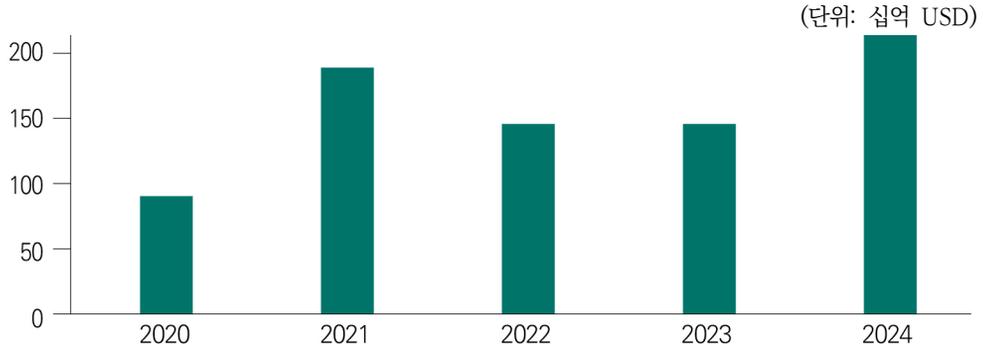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양도소득세

2025년 양도소득세는 19.9조원으로, 2024년(16.7조원) 대비 3.2조원(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19.4조원)을 0.5조원(2.4%)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5년 양도소득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최근 부동산·주식 시장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8월까지 14.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8조원(24.3%)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4년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식분 양도소득세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2020~2024년 외화증권(주식) 예탁결제액(매도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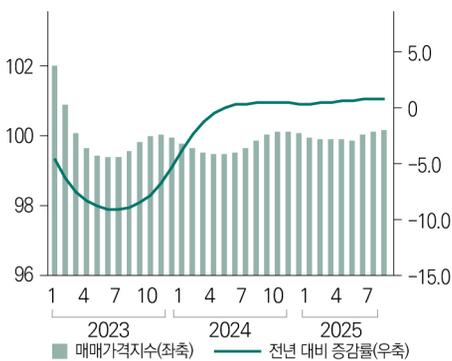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도 양도소득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가격의 하락세는 2024년 6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주택종합)는 2024년 하반기 전년동월 대비 0.1~0.3% 상승하였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0.2~0.5%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토지가격(지가)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0.4%까지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이후로 증가세가 확대되어 2025년 8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2%까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5] 주택 매매가격지수(전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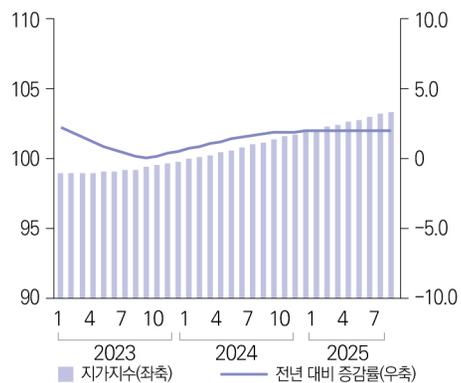
(단위 : 2025.3.=100, %)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6] 지가지수(전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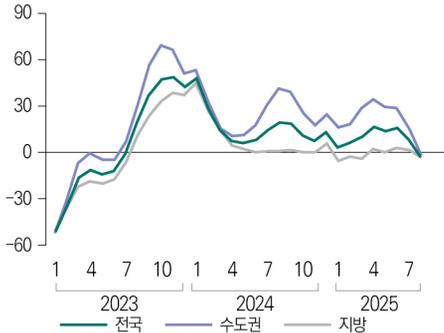
(단위 : 2023.12.=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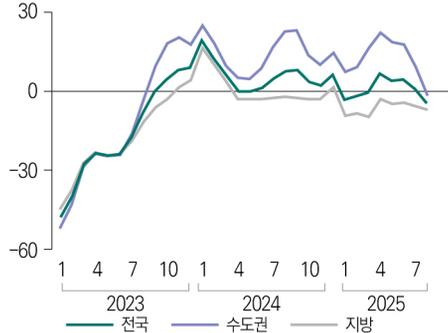
부동산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2024년 5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으나, 지방의 거래량은 보합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2025년

6월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¹⁵⁾의 영향으로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토지의 경우 2024년 2분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으나, 지방의 거래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7] 주택 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그림 8] 토지 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주: 3개월 이동평균(M3) 거래량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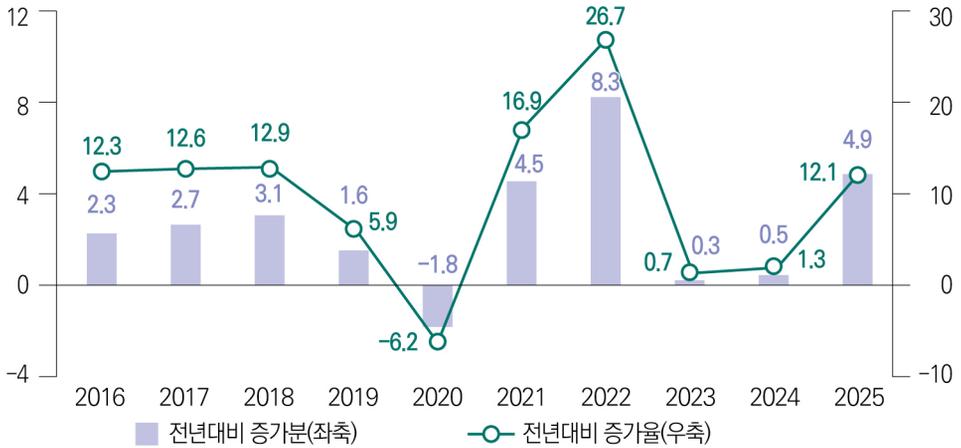
2025년 근로소득세는 67.6조원으로, 2024년(61.0조원) 대비 6.5조원(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64.7조원)을 2.8조원(4.4%)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5년 근로소득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8월 누적 45.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4.9조원(12.1%) 증가하였다. 이는 3월 누적 근로소득세가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6.4%(2.7조원) 증가한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 당월 근로소득세수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월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전년도의 1.3%에서 12.1%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15) 정부는 2025년 6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강화(수도권 등 규제지역 6억원 및 다주택자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대상 주택 실거주 의무화 및 가계대출과 정책대출의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6.27.)

[그림 9] 연도별 8월 누적 근로소득세수의 증감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용시장 지표 중 먼저 명목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누적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동기(2.4%) 대비 1.2%p 높은 3.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영향으로 1월 중 특별급여 증가율(80.6%)이 전년동기(△44.5%)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1월 중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나, 6월 누적 기준으로는 2.9% 증가하며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6월 누적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7%에서 8.1%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체 임금상승율도 전년동기(2.4%) 보다 확대되었다.

[표 7]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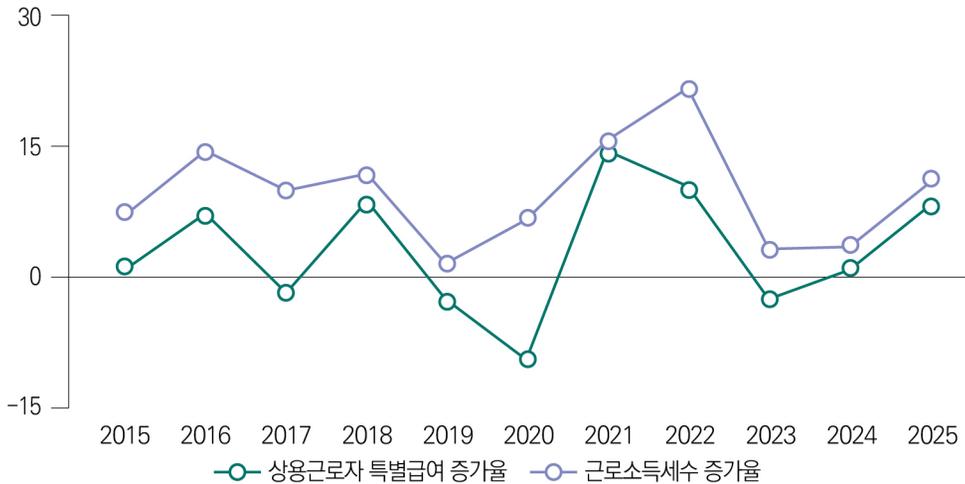
	2023		2024		2025
	1~6월	연간	1~6월	연간	1~6월
전체	2.4	2.5	2.4	2.9	3.6
상용 정액급여	4.0	3.8	3.5	3.2	2.9
상용 초과급여	2.2	3.3	8.0	5.8	5.0
상용 특별급여	△4.0	△2.9	△5.7	0.4	8.1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과거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과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두 증가율의 추이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별급여 증가율이 개선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특별급여 감소세가 확대되거나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수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의 경우도 1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이 전년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월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율도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24년 2월 Δ 7.0% → '25년 2월 17.0%)되었으며, 2024년도 7월에 이어 금년 7월에도 특별급여가 지급되면서 2025년 연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2024년보다 개선('24년 3.2% → '25년 10.7%)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대비, %)



주: 1. 근로소득세수는 근로소득세에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실적 활용
 2. 2025년 특별급여 증가율은 2025년 6월(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2025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2025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며 8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17.8만명(0.6%)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세는 1월 이후 확대되는 모습이나, 세부적으로는 여성 및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5.1~8월
전체	△218	369	816	327	159	178
여성	△137	202	436	303	188	174
남성	△82	166	381	24	△29	4
60세 이상	375	330	452	366	266	356
20~59세	△557	29	357	△23	△107	△164
임금근로자	△108	421	749	327	214	262
상용직	305	366	805	478	183	290
임시직	△313	152	43	△61	154	47
일용직	△101	△96	△100	△90	△122	-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 기타

소득세 세부 세목 중 주요 세목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에 대한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자소득세는 7.1조원으로, 2024년(7.2조원) 대비 0.1조원(△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소득세는 8월 누적 4.9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1조원(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이자지급액의 베이스가 되는 2024년 예금은행 수신금리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동 금리의 하락폭이 확대되어 9~12월 이자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2025년 이자소득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배당소득세는 4.4조원으로, 2024년(4.3조원) 대비 0.1조원(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세는 8월 누적 3.6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1조원(2.7%)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전망하였다.

그 밖에 사업소득세(5.0조원), 기타소득세(2.4조원), 퇴직소득세(1.2조원), 연금소득세(0.7조원)는 8월 실적의 증가세가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법인세

2025년 법인세는 83.9조원으로, 2024년(62.5조원) 대비 21.4조원(3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83.6조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60.6조원으로, 2024년 대비 21.2조원(53.8%) 증가하고, 추경예산(59.7조원)을 1.0조원(1.6%)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세 원천분은 23.3조원으로 2024년 대비 0.2조원(0.7%) 증가하나, 추경예산(23.9조원)을 0.6조원(△2.7%)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2025년 NABO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62.5	83.6	83.9	21.4	34.2	0.3	0.4
- 신고분	39.4	59.7	60.6	21.2	53.8	1.0	1.6
- 원천분	23.1	23.9	23.3	0.2	0.7	△0.6	△2.7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5년 법인세 신고분은 8월까지의 수납 실적과 2024년 법인 영업실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우선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8월 누적 기준 47.3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7.4조원(58.2%) 증가하였다. 이러한 법인세 신고분의 증가는 2024년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2025년 3~5월에 수납되는 법인세 신고분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¹⁶⁾ 또한, 2025년 상반기에도 법인 영업실적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한 8월 법인세 신고분 실적도 14.5조원으로 전년동월(10.9조원) 대비 3.7조원(33.4%) 증가하였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법인세

16)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2025년 3~5월간 수납액은 31.7조원으로 전년동기(18.3조원) 대비 13.5조원(73.8%) 증가하였다.

[표 10] 2025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4	△0.2	0.1	14.0	2.0	2.3	0.5	0.3	10.9	29.9
2025	0.2	0.01	19.6	8.3	3.8	0.5	0.3	14.5	47.3
증감 (%)	0.4 (211.1)	△0.07 (△82.9)	5.6 (40.2)	6.4 (324.9)	1.5 (63.8)	0.03 (5.0)	△0.1 (△17.0)	3.7 (33.4)	17.4 (58.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법인 영업실적은 세계경제 및 교역량 회복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세계 교역규모는 3.4% 성장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화기준 통관수출은 2024년 480.3조원¹⁷⁾(6,837억 달러)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관수출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이 견인하였는데, 반도체는 2024년 원화기준 192.3조원(1,408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48.6%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 조선 등도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그림 11]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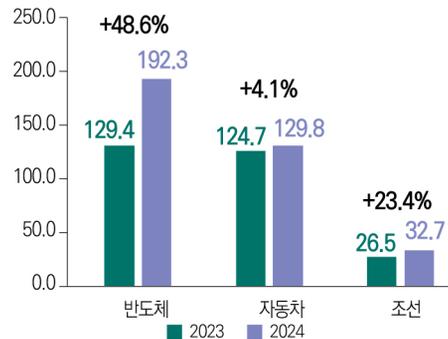
(단위: 조원, %)



주: 월별 통관수출액에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2] 주요 품목의 수출 현황

(단위: 조원, %)



주: 월별 수출액에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이로 인해 2024년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61.7%, 세전순이익은 83.6%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 증가세를 견인한 가운데, 자동차 등 운송장비, 서비스업 등도 실적이 개선되었다.

17) 원화기준 통관수출액은 월별 통관수출액(달러기준)에 월평균 환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표 11]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3.2	73.6	△14.7	△24.5	61.7
	세전순이익	9.4	121.6	△25.4	△32.4	83.6
외부감사 대상법인 (외감법인)	영업이익	0.1	53.8	△6.6	△24.6	13.7
	세전순이익	3.8	95.2	△19.0	△18.5	23.7

주: 1) 기업경영분석 2024년 영업이익 및 세전순이익증감률은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률, 세전순이익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2]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요 업종별 세전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

	2024 실적	2025		
		실적	증감액	증감률
전산업	98.3	180.5	82.2	83.6
전기전자	6.2	65.0	58.7	943.9
운송장비	36.6	40.2	3.7	10.1
서비스업	14.0	23.7	9.7	69.6
운송창고업	5.4	7.9	2.4	45.0
IT서비스	3.5	7.7	4.3	122.9
화학	10.4	6.1	△4.4	△41.8
유통업	7.8	5.8	△2.0	△26.0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2025년 법인세 원천분은 8월까지의 수납실적, 최근 일반법인(금융업 제외)의 금융자산 증가 추이¹⁸⁾와 금리 등 지표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5년 8월 누적 기준 법인세 원천분은 16.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4조원(2.7%) 증가하였다.

18) 일반법인(금융업 제외)의 금융자산은 2024년말 4,245.2조원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4,400.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법인세 원천분의 월별 세수흐름을 살펴보면, 4월까지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부터는 대체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수신금리의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신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여 2025년 9~12월간 법인세 원천분 세수는 전년동기(7.4조원) 대비 0.2조원(△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3] 2025년 법인세 원천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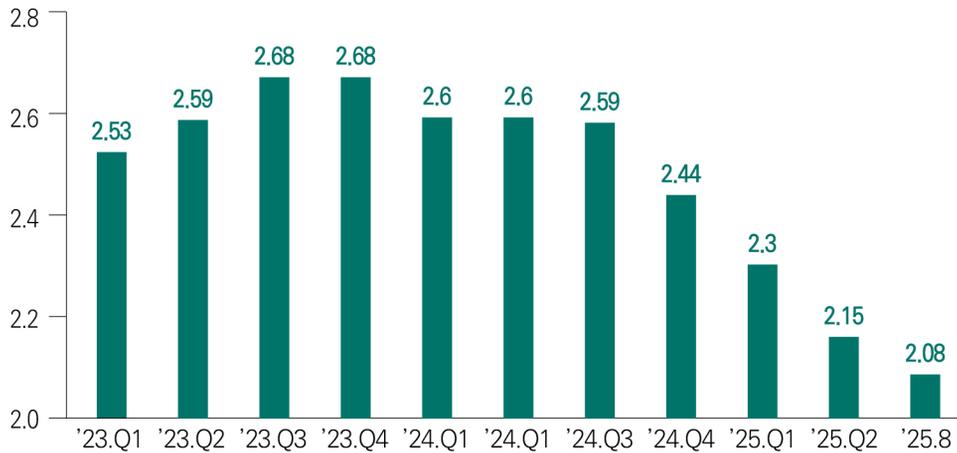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4	2.1	1.4	1.3	2.1	3.2	1.8	2.0	1.7	15.7
2025	2.5	1.5	1.4	2.2	3.2	1.7	2.1	1.4	16.1
증감 (%)	0.3 (14.7)	0.1 (4.2)	0.2 (13.4)	0.1 (6.1)	△0.02 (△0.8)	△0.1 (△5.3)	0.1 (7.3)	△0.3 (△16.5)	0.4 (2.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3] 예금은행 수신금리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부가가치세

2025년 부가가치세는 81.7조원으로, 2024년(82.2조원) 대비 0.6조원(△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83.3조원)을 1.7조원(△2.0%)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5년 부가가치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 및 최근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및 수출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전망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표 14] 2025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추경예산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82.2	83.3	81.7	△0.6	△0.7	△1.7	△2.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57.7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2조원(△2.1%) 감소한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주로 국내분 부가가치세 감소에 기인한다.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23.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4조원(△5.5%)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분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34.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1조원(0.3%) 증가하여 전년과 유사한 모습이다.

[표 15] 2025년 부가가치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누적
전체	22.2	△5.4	1.9	21.0	△1.2	1.5	21.5	△3.6	57.7
(전년대비 증감액)	(△0.8)	(0.1)	(△0.8)	(0.9)	(0.2)	(△0.9)	(△0.2)	(0.3)	(△1.2)
국내분	19.3	△9.6	△2.7	15.9	△6.0	△2.4	16.7	△8.1	23.1
(전년대비 증감액)	(△0.8)	(△0.1)	(△0.7)	(0.3)	(△0.01)	(△0.3)	(△0.3)	(0.5)	(△1.4)
수입분	2.9	4.3	4.5	5.0	4.8	3.9	4.8	4.5	34.7
(전년대비 증감액)	(△0.1)	(0.2)	(△0.04)	(0.6)	(0.2)	(△0.7)	(0.2)	(△0.3)	(0.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전년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분기 3.1% 증가하였던 명목 민간소비는 대내외 불안요인 등의 영향으로 2024년 4분기 2.6%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5년 1분기에는 2.4% 성장에 그쳤다. 다만, 대내 불안요인이 해소된 2분기부터는 증가세가 소폭 개선(2.6%)되었다. 하반기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될 전망이다. 이러한 하반기 민간소비 개선 전망은 소매판매액지수나 서비스업생산지수가 7월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

우선 소매판매액지수는 2024년 4분기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하였고, 2025년 1~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1~1.4%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회복되면서 2025년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4.0%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서비스업생산지수 역시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이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된 1.9~2.7%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25년 7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4%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분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설비투자와 수출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요인의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설비투자의 경우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반도체 장비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통관수출의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14] 명목 민간소비 및 소비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명목 민간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5] 명목 설비투자 및 통관수출액 증감률 추이

<명목 설비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원화기준 통관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기타 소비세수

2025년 부가가치세 외 기타 소비세수¹⁹⁾는 37.6조원으로, 2024년(35.7조원) 대비 1.8조원(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40.1조원)을 2.6조원(△6.4%)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소비세수의 증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일부 환원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표 16] 2025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35.7	40.1	37.6	1.8	5.1	△2.6	△6.4
개별소비세	8.7	8.7	8.3	△0.4	△4.2	△0.5	△5.2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4.0	13.2	1.8	15.6	△0.8	△6.0
관세	7.0	8.4	7.4	0.4	6.3	△1.0	△11.8
기타 ¹⁾	8.7	9.0	8.7	△0.01	△0.2	△0.3	△3.3

주: 1) 기타 항목은 교육세 및 주세로 구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개별소비세

2025년 개별소비세는 8.3조원으로 2024년(8.7조원) 대비 0.4조원(△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8.7조원)을 0.5조원(△5.2%)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5년 개별소비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과세대상 품목의 연간 소비량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박성은 추계세제분석관(ixsepark@assembly.go.kr, 6788-4668) 개별소비세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교통·에너지·환경세
 장설희 추계세제분석관(shjang@assembly.go.kr, 6788-4836) 관세

19) 이하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및 주세의 세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8월 누적 5.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3조원(△4.7%) 감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개별소비세의 감소는 상반기 민간 소비 부진에 따라 과세대상 물품 소비가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유류분 및 유연탄분의 경우 발전용 유연탄, 등유, 중유 등의 소비량이 2024년 6,451만톤에서 2025년은 6,038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개별소비세 자동차분의 경우 연중 적용된 개별소비세 세율인하(5 → 3.5%)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경우 궤련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궤련담배 판매는 감소하고 전자담배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세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세대상별 전망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는 2024년(8.7조원) 대비 0.4조원(△4.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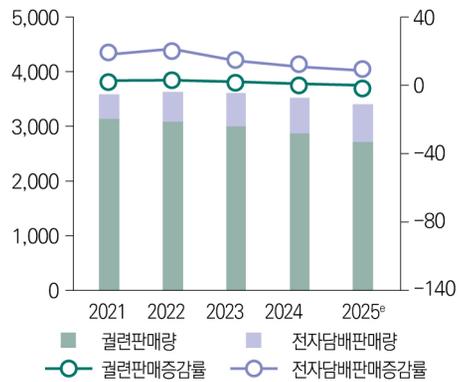
[그림 16] 승용차 소매판매지수 실적 및 전망
(단위: 2020년=100, %)



주: 2021~2024년은 실적, 2025년 전망

자료: 통계청(「서비스업동향조사」) 및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5.4.18.)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7] 담배판매량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갑, %)



교통·에너지·환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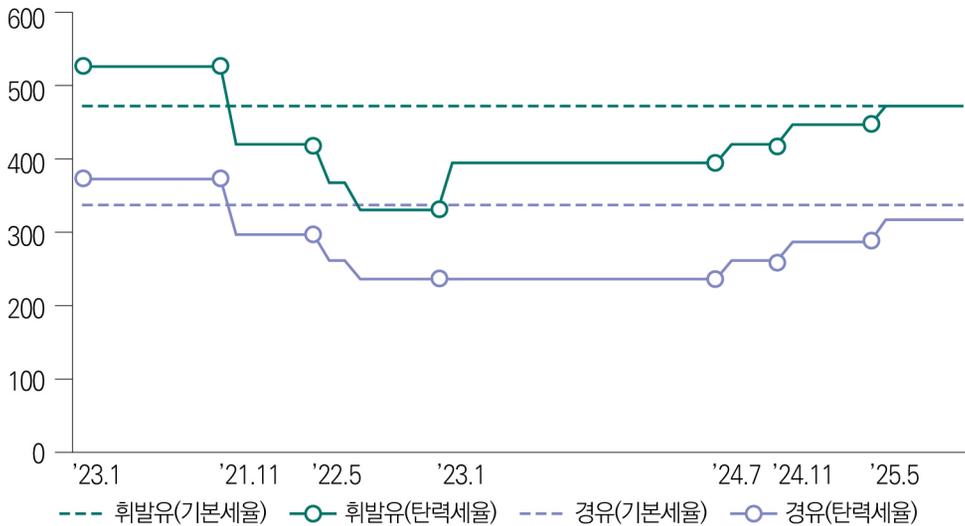
2025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2조원으로 2024년(11.4조원) 대비 1.8조원(1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14.0조원)을 0.8조원(△6.0%) 하회

하는 수준이다. 2025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유류세 탄력세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 누적 기준 8.6조원으로 전년동기(7.3조원) 대비 1.3조원(18.1%) 증가한 수준에서 수납되었다. 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일부 환원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²⁰⁾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²¹⁾, 이후 기간 유류세 인하 종료 및 추가환원 여부에 따라 2025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소폭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18]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변동 추이

(단위: 원/ℓ)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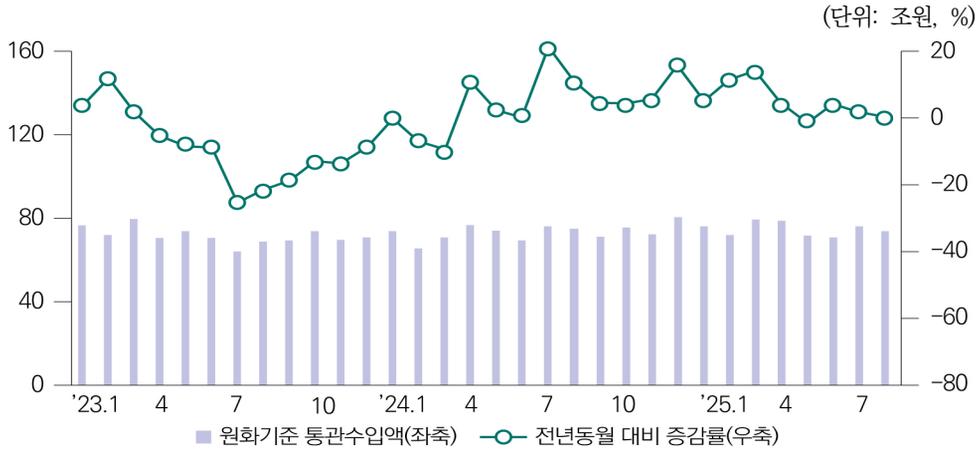
2025년 관세는 7.4조원으로, 2024년(7.0조원) 대비 0.4조원(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추경예산(8.4조원)을 1.0조원(△11.8%)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관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 탄력세율(원/ℓ): (23.1.~24.6.) 휘발유 396.7, 경유 238 → (24.7~10.) 휘발유 423, 경유 263 →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 (25.5.~10.) 휘발유 476, 경유 319 → (25.11.~25.12.) 휘발유 492, 경유 337.5

2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22호, 2025.8.29., 일부개정)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관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5.0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4.4조원)대비 0.5조원(11.6%) 증가하였다. 이는 연초부터 이어진 고환율의 영향으로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이 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그림 19]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운용 규모의 축소도 관세수입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 및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 대비 40%p 범위에서 낮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06개 품목(정기할당 76개, 긴급할당 30개)으로, 이는 1조원 이상의 관세 세수 감소를 초래했던 2022~2024년에 비해 운용 규모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7]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및 세수 감소액 추이

	2021	2022	2023	2024	2025.9.
품목 수	92	119	117	125	106
정기	82	90	95	77	76
긴급	10	29	22	48	30
세수 감소액	6,758	19,694	10,753	14,301	-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기타 자산세수

2025년 기타 자산세수²²⁾는 39.7조원으로, 2024년(38.6조원) 대비 1.0조원(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38.2조원)을 1.5조원(3.8%)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자산세수는 사망자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와 유가증권 시장(KOSPI)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증가를 중심으로 20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감소와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 대비 1.6조원(△33.4%) 감소하여 기타 자산세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2025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2025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38.6	38.2	39.7	1.0	2.7	1.5	3.8
상속세 및 증여세	15.3	15.4	16.5	1.2	7.5	1.0	6.5
증권거래세	4.8	3.8	3.2	△1.6	△33.4	△0.7	△17.6
종합부동산세	4.2	4.1	4.4	0.2	5.3	0.3	6.9
기타 ¹⁾	14.4	14.8	15.7	1.2	8.7	0.8	5.7

주: 1) 기타 항목은 인지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상속세 및 증여세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6.5조원으로, 2024년(15.3조원) 대비 1.2조원(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경예산(15.4조원)을 1조원(6.5%) 상회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10.5조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는 전년 대비 0.3조원(5.2%) 증가한 5.9조원으로 전망된다.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전망은 8월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과 최근 자산평가액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choi1009@assembly.go.kr, 6788-4838) 상속세 및 증여세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증권거래세
 신미정 추계세제분석관(mjshin@assembly.go.kr, 6788-4837) 종합부동산세

22) 이하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8월 누적 기준 7.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 대비 0.7조원(10.0%) 증가하였다. 상속세의 증가는 사망지수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다. 증여세는 8월 누적 기준 4.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0.2조원(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 상승 및 증여거래 증가 등에 기인한다.

[표 19] 2025년 8월 누적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

(단위: 조원, %)

구분	2024.1~8.(A)	2025.1~8.(B)	차이(B-A)	
			증감액	증감률
계	10.7	11.6	0.9	8.5
상속세	6.8	7.5	0.7	10.0
증여세	3.9	4.2	0.2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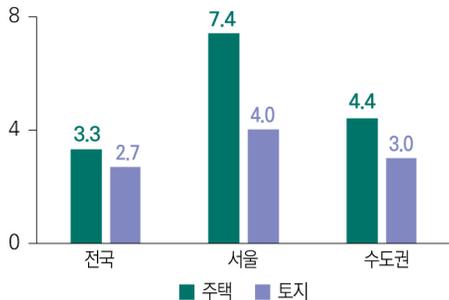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 시장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평가액인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증여거래의 경우, 전국 단위의 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증여거래는 9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0%, 3.5% 증가하였다.

[그림 20]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및 증여거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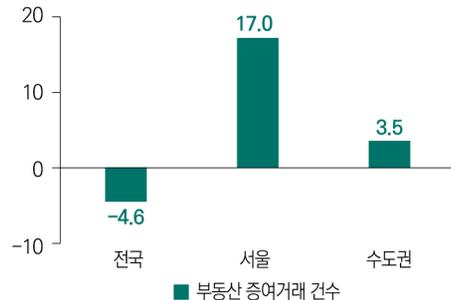
<공시가격 상승률: 2025년>

(단위: 전년 대비, %)



<부동산 증여거래 증감률: 2025.1~9월>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국토교통부(공시가격) 및 대한민국 법원(증여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권거래세

2025년 증권거래세는 3.2조원으로, 2024년(4.8조원) 대비 1.6조원(△3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3.8조원)을 0.7조원(△17.6%)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5년 증권거래세는 8월까지의 증권거래세 수납실적과 최근 증권거래대금 추이,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제도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5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8월 누적 기준 2.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3조원(△37.9%) 감소하였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대금의 감소와 2025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유가증권 0.03% → 0²³⁾, 코스닥 0.18 → 0.15%)에 주로 기인한다.

코스닥 시장의 8월 누적 증권거래대금은 1,06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 감소하였다.²⁴⁾ 다만 6월 이후에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이전 대비 거래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주가지수 상승과 함께 투자자 예약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같은 증시주변자금²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평균 코스닥 거래대금도 9월부터 소폭 증가하였다. 10월 이후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전년 대비 △0.03%p)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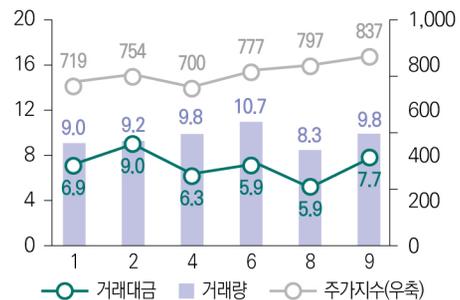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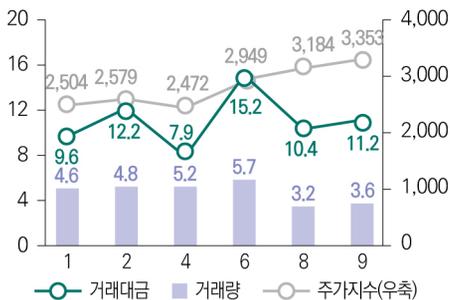
[그림 21] 2025년 일평균 거래대금·거래량·주가지수 추이

<유가증권>

<코스닥>

(단위: 조원, 억주, p)

(단위: 조원, 억주, p)



주: 9월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3)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는 농어촌특별세(0.15%)만 과세하고 있다.

24) 유가증권시장의 2025년 8월 누적 거래대금은 1,77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하였다.

25) 투자자 예약금(조원): ('25.1Q) 58.5 (2Q) 69.0 (3Q) 76.4

환매조건부채권(조원): ('25.1Q) 91.0 (2Q) 93.2 (3Q) 98.8

종합부동산세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4.4조원으로, 전년(4.2조원) 대비 0.2조원(5.3%) 증가하여 추경예산(4.1조원) 대비 0.3조원(6.9%)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6월까지의 전년도 세수 분납분 실적²⁶⁾과 금년 부동산 시장가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전국 평균 주택 3.3%, 토지 2.7%)하였다.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전망한 후 최근의 분납비율을 적용하여 2025년 종합부동산세수를 전망하였다.

[그림 22]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주: 1.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값 (가중치: 호수)

2.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표준지, 개별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필지수)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6)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연도 6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BOX 1] 정부의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정부는 금년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2025년 국세수입을 369.9조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추경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이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등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주요 세목별 전망 결과와 전년 대비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128.4조원으로 전년 대비 10.9조원(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득세 세부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매량 증가 및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9조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세는 83.6조원으로 전년 대비 21.1조원(3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2025년 국세수입 증가를 법인세가 주도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경제성장 및 대외 교역량 확대 등에 따른 기업 영업실적(상장사 영업이익, 개별기준)이 2023년 46.2조원에서 2024년 113.7조원으로 증가(전년 대비 146.2%)한 것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부가가치세는 80.9조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1.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부는 8월 누적 부가가치세수 실적과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0.3% 증가 전망)에 따른 환급 증가, 하반기 환율 하락 전망 등에 따른 수입분 감소 등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전망하였다.

기타 세목 중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의 효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전년 대비 1.7조원,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0.03%p)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정부의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25년 재추계	'24년 실적 대비		'25년 추경예산 대비	
				증감	%	증감	%
총 국 세	336.5	372.1	369.9	33.4	9.9	△2.2	△0.6
[일반회계]	326.2	361.5	358.2	32.1	9.8	△3.2	△0.9
◇ 내 국 세	298.3	329.2	327.4	29.1	9.8	△1.8	△0.5
○ 소 득 세	117.4	126.8	128.4	10.9	9.3	1.5	1.2
▪ 종합소득세	19.5	22.1	20.9	1.4	7.3	△1.1	△5.0
▪ 양도소득세	16.7	19.4	19.6	2.9	17.2	0.2	0.8
▪ 근로소득세	61.0	64.7	67.5	6.5	10.6	2.8	4.3
○ 법 인 세	62.5	83.6	83.6	21.1	33.8	0.1	0.1
○ 상 속 증 여 세	15.3	15.4	16.2	0.9	5.6	0.7	4.6
○ 부 가 가 치 세	82.2	83.3	80.9	△1.3	△1.6	△2.4	△2.9
○ 개 별 소 비 세	8.7	8.7	8.3	△0.4	△4.5	△0.5	△5.5
○ 증 권 거 래 세	4.8	3.8	3.1	△1.6	△34.1	△0.7	△18.4
○ 인 지 세	0.8	0.9	0.8	△0.1	△8.3	△0.1	△12.2
○ 과 년 도 수 입	6.5	6.5	6.1	△0.4	△6.3	△0.4	△6.1
◇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4.0	13.1	1.7	14.9	△0.9	△6.6
◇ 관 세	7.0	8.4	7.4	0.4	6.1	△1.0	△12.0
◇ 교 육 세	5.4	5.8	5.8	0.4	7.5	0.0	0.0
◇ 종합부동산세	4.2	4.1	4.6	0.4	9.5	0.5	11.1
[특별회계]	10.4	10.6	11.7	1.3	13.0	1.1	10.1
◇ 주 세	3.3	3.2	3.2	△0.1	△3.8	△0.0	△0.2
◇ 농어촌특별세	7.0	7.4	8.5	1.5	20.9	1.1	14.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II. 2026년 국제수입 전망

1. 2026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2026년 세계경제는 2025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는 2025년 1.4%에서 2026년 1.5%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미국을 비롯해 2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어 온 독일, 프랑스 등 유로지역의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도국 경제는 중국이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2025년 4.7%에서 2026년 4.2%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인도, 러시아 등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2026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은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및 보호주의 강화, 주요국 재정여건 및 거시경제정책 대응 여력 약화, 지정학적 긴장 및 갈등 지속, 주요국 재정·통화정책의 비일관성,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이다.

[표 20] 주요 국제기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p)

		2024	2025	2026
IMF (’25.7.)	(세계)	3.3	3.0 (0.2)	3.1 (0.1)
	(미국)	2.8	1.9 (0.1)	2.0 (0.3)
	(중국)	5.0	4.8 (0.8)	4.2 (0.2)
세계 은행 (’25.6.)	(세계)	2.8	2.3 (△0.4)	2.4 (△0.3)
	(미국)	2.8	1.4 (△0.9)	1.6 (△0.4)
	(중국)	5.0	4.5 (0.0)	4.0 (0.0)
OECD (’25.6.)	(세계)	3.3	2.9 (△0.2)	2.9 (△0.1)
	(미국)	2.8	1.6 (△0.6)	1.5 (△0.1)
	(중국)	5.0	4.7 (△0.1)	4.3 (△0.1)

주: ()안은 직전 전망 대비 수정폭(%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김원희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경제성장률

2026년에는 내수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는 1.9% 성장할 전망이다. 2026년 중 내수는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재정확대, 완화적 금융기조 등 정책 뒷받침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내수의 한 축인 투자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기여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AI 관련 투자 수요가 지속되겠으나,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및 이민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저가공세 등 가격경쟁 격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있다. 다만, AI 등 신산업과 R&D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 추가적인 금융완화 가능성 등에 힘입어 실제 성장률이 이번 전망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2026년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2025년 1.4% 대비 0.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대내 불확실성 축소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 심리가 완연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민간소비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 평균소비성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점과 누적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증가를 밀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설비투자는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5년의 2.8% 대비로는 1.1%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설비투자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기업경기 심리 회복의 지연,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기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준선(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반도체(40.4%)와 운송장비(16.0%)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설비투자 확대 여력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5년 대비 3.1% 성장할 전망이다. 그간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R&D투자 지출 확대에 힘입어 2026년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거래

2026년 통관기준 수출액은 2025년 대비 1.0% 감소할 전망이다. 통관수출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겠으나, 선수요가 반영됐던 범용 반도체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 수입수요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수출 전망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된다.¹⁾

2026년 통관기준 수입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할 전망이나 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증가세는 완만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2026년 소비자물가는 2025년 대비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중 서비스 부문의 기여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으며, 공업 제품 및 전기수도가스 부문의 기여도 또한 축소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생산자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2026년 취업자 수는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등에 힘입어 16만명(0.6%)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 회복과 노인 돌봄 수요 증가세 등이 고용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수출경기 둔화는 고용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 NABO 경제동향 & 이슈(2025.05)의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을 참조

2026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3.2%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노동 수요 진작이 임금상승률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돌봄 관련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 저임금 일자리 비중 확대는 평균임금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리

2026년 연평균 국고채금리(3년)는 2025년과 동일한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국고채금리의 하락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 지속 등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또한 국고채금리 하락 등에 따라 2026년 2.8%로 전망된다.

[표 2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 성장률	1.6	2.0	1.0	1.9
민간소비	2.0	1.1	1.4	1.7
설비투자	△0.2	1.7	2.8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2	1.2	2.8	3.1
경상수지(억달러)	328	990	1,100	900
통관수출	△7.5	8.1	0.3	△1.0
통관수입	△12.1	△1.7	△1.6	0.8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2.0	4.1	2.2	2.1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3	2.0	1.9
취업자수 증감(만명)	32.7	15.9	17.5	16.0
명목임금 상승률	2.5	2.9	3.3	3.2
국고채금리(3년)	3.6	3.1	2.4	2.4
회사채금리(3년, AA-)	4.4	3.7	3.0	2.8
명목GDP 성장률	3.7	6.2	3.2	4.0

주: 2023~2024년은 실적치, 2025년 및 2026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2. 2026년 국세수입 전망

가. 총괄

2026년 국세수입은 396.1조원으로, 2025년(372.3조원)²⁾ 대비 23.8조원(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³⁾ 이러한 국세수입의 증가는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수회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및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세 지속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도 국세수입 증가세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36.7조원으로, 2025년(129.5조원) 대비 7.2조원(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증가 전망과 함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경기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증가 전망,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증가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법인세는 87.5조원으로, 2025년(83.9조원) 대비 3.6조원(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신고분은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이 2024년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수신금리 인하 등으로 법인세 원천분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86.7조원으로 2025년(81.7조원) 대비 5.0조원(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는 2026년에는 민간소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타 세목은 대부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대체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2025년 대비 3.0조원(2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0.05%p 인상될 것을 전제로 2025년 대비 2.3조원(7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2) 이하 '2025년'은 이 보고서에 따른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3) 2026년 전망에는 2025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세법개정안 항목은 법인세율 인상(법인세),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인상(증권거래세) 등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396.1조원)은 정부 예산안(390.2조원)을 5.9조원(1.5%)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내수회복 등에 따라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을 정부보다 높게 전제하는 등에 주로 기인한다.⁴⁾

다만, 최근 발표된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잠정치) 등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함에 따라 세입전망 당시 전제한 경제성장률⁵⁾을 상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보다 빠른 내수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국세수입 전망에 대하여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및 주요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규제 확대에 의한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하방요인으로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22]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72.3	390.2	396.1	23.8	6.4	5.9	1.5
일반회계	360.6	378.6	384.0	23.4	6.5	5.4	1.4
내국세	330.1	343.9	349.6	19.5	5.9	5.7	1.6
1. 소득세	129.5	132.1	136.7	7.2	5.5	4.6	3.5
2. 법인세	83.9	86.5	87.5	3.6	4.3	0.9	1.1
3.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0	17.1	0.6	3.7	0.04	0.2
4. 부가가치세	81.7	86.6	86.7	5.0	6.1	0.1	0.1
5. 개별소비세	8.3	9.4	9.1	0.8	10.0	△0.3	△2.7
6. 증권거래세	3.2	5.4	5.5	2.3	73.5	0.1	2.3
7. 인 지 세	0.8	0.8	0.8	△0.01	△0.8	△0.01	△0.9
8. 과년도수입	6.3	6.1	6.3	△0.1	△1.2	0.1	2.3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6.2	3.0	23.0	△0.2	△1.3
관세	7.4	7.2	7.3	△0.1	△1.1	0.1	1.6
교육세	5.5	6.4	6.2	0.7	13.3	△0.2	△3.2
종합부동산세	4.4	4.6	4.7	0.2	5.6	0.03	0.6
특별회계	11.7	11.6	12.1	0.4	3.5	0.5	4.2
주세	3.2	3.1	3.2	△0.01	△0.4	0.03	0.8
농어촌특별세	8.5	8.5	9.0	0.4	4.9	0.5	5.5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4) 보다 구체적인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는 “II.3.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p.61)를 참조하기 바란다.

5) 국회예산정책처 실질GDP 성장률 전망(2025.9.): (2025년) 1.0%, (2026년) 1.9%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2026년 소득세는 136.7조원으로, 2025년(129.5조원) 대비 7.2조원(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안 132.1조원을 4.6조원(3.5%)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증가는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증가,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증가,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증가에 기인한다. 다만,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세는 전년 대비 0.6조원(△9.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6년 NABO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29.5	132.1	136.7	7.2	5.5	4.6	3.5
신고분	41.2	43.2	43.3	2.1	5.1	0.2	0.4
종합소득세	21.3	22.6	22.6	1.3	6.1	0.0	0.1
양도소득세	19.9	20.5	20.7	0.8	4.1	0.2	0.8
원천분	88.3	89.0	93.4	5.1	5.7	4.4	4.9
이자소득세	7.1	6.0	6.4	△0.6	△9.2	0.4	6.7
배당소득세	4.4	4.6	4.7	0.4	8.2	0.1	2.1
사업소득세	5.0	5.3	5.3	0.3	6.8	0.0	0.9
근로소득세	67.6	68.5	72.3	4.7	7.0	3.8	5.6
연금소득세	0.7	0.9	0.8	0.1	19.2	△0.1	△7.2
기타소득세	2.4	2.5	2.5	0.1	6.0	0.1	3.1
퇴직소득세	1.2	1.2	1.3	0.0	4.0	0.0	1.2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min1231@assembly.go.kr, 6788-4746) 종합소득세, 소득세 기타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662) 근로소득세, 소득세 기타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는 22.6조원으로, 2025년(21.3조원) 대비 1.3조원(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2.6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6년 종합소득세는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종합소득세의 세원에 영향을 미치는 2025년 거시경제 지표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명목GDP 성장률 3.2%, 실질GDP 성장률 1.0%,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3.2%로 전망하였다. 2026년 종합소득세수는 이러한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3]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표 24]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25.1분기	'25.2분기
전체 평균	2.9	△0.3
- 1분위	△22.2	△34.2
- 2분위	0.6	△0.5
- 3분위	△10.2	△6.6
- 4분위	2.1	△4.9
- 5분위	6.8	3.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6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2025년 귀속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사업소득 증가율은 전체 자영업자 평균 기준으로 2025년 1분기는 2.9% 증가, 2분기는 소폭의 감소세(△0.3%)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5분위의 경우 1분기(6.8%)에 이어 2분기(3.8%)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상위구간 집중도가 높음을 감안⁶⁾할 때, 5분위의 소득 증가는 종합소득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으며, 4분위의 경우 1분기에는 2.1%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감소(△4.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국회예산정책처(2025)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의 11.6%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55.1%를 차지하고, 전체 결정세액의 86.6%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로 인해 2026년 종합소득세수의 증가세는 소폭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세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징수시차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반영되는 세수효과 중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⁷⁾로, 이에 따라 2026년 세수가 약 0.1조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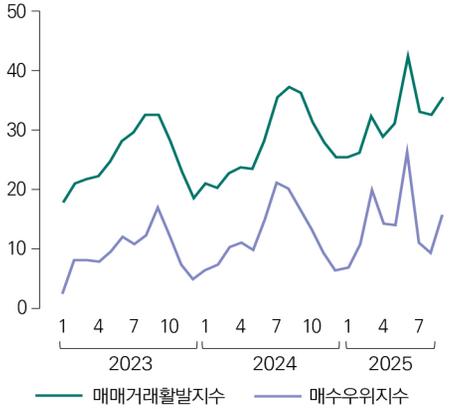
2026년 양도소득세는 20.7조원으로, 2025년(19.9조원) 대비 0.8조원(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 20.5조원을 0.2조원(0.8%) 상회하는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5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주택 및 토지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최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향후 입주물량 감소 등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어보이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2025.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승세가 완만하게 제약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토지가격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제하여 전망하였다.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된 부동산 시장의 심리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매거래 활발지수와 매수우위 지수는 월별로 다소 변동성이 존재하나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2025년 7~8월에는 부동산 심리지수가 하락하였으나 9월부터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매매가격 전망지수의 경우 2025년 5월 109.7까지 증가하였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 발표 이후 7월 96.6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9월에는 101.6으로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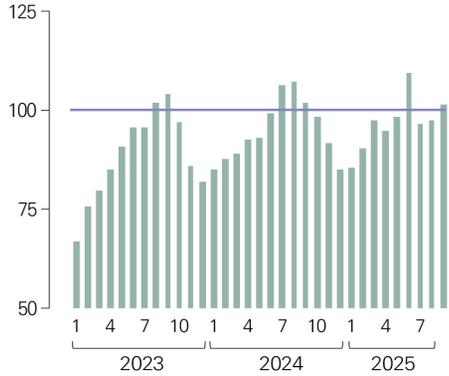
7)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공제금액을 인당 1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다.(첫째/둘째/셋째: 15/20/30만원 → 25/30/40만원으로 인상)

[그림 24] 부동산 시장심리지수 추이
(단위: p)



주: 1. 매매거래 활발지수 = 100 + “활발함” 비중
- “한산함” 비중
2. 매수우위 지수 = 100 + “매수자 많음” 비중
- “매도자 많음” 비중
자료: KB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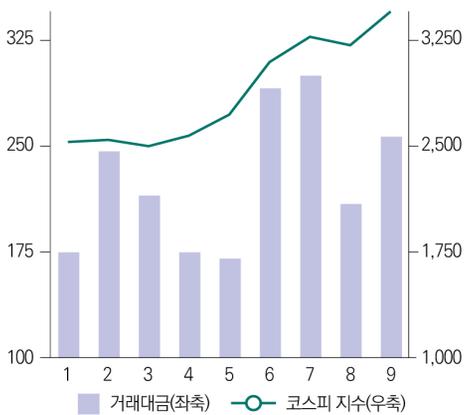
[그림 25] 매매가격 전망지수 추이
(단위: p)



주: 지수가 100보다 크면 상승 전망 우세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하락 전망 우세
자료: KB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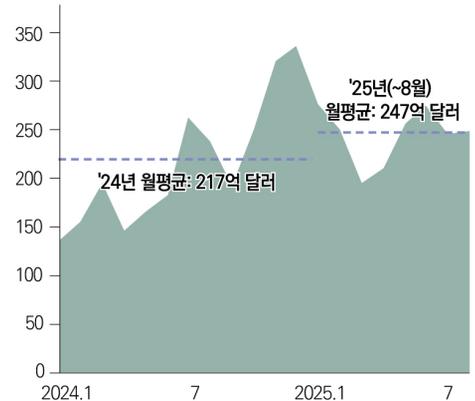
주식분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외주식 거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를 중심으로 국내주식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6] 2025년 유가증권 시장지표 추이
(단위: 조원, 1980.1.4.=100)



주: 거래대금은 누적 기준, 지수는 종가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그림 27] 해외주식 매도금액 추이
(단위: 억달러)



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투자내역이며, 결제시점 기준으로 집계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근로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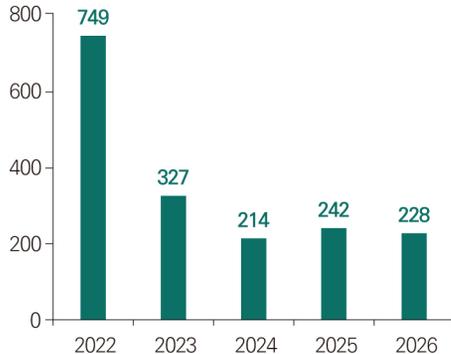
2026년 근로소득세는 72.3조원으로, 2025년(67.6조원) 대비 4.7조원(7.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산안 68.5조원을 3.8조원(5.6%)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근로소득세 전망의 전제인 고용지표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2025년 1.1%, 2026년 1.0%로, 임금상승률을 2025년 3.3%, 2026년 3.2%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지표의 개선이 근로소득세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수가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특별급여 지급액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2026년 상용근로자 특별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2025년 연간 법인영업이익은 2025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실적⁸⁾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6년 근로소득세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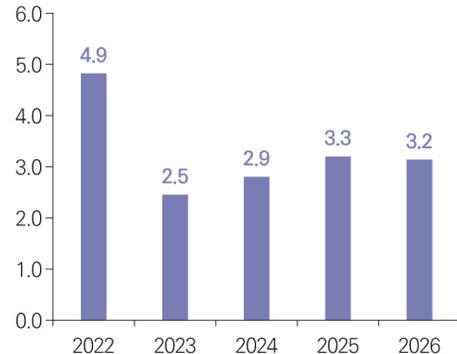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명)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주: 2025년과 2026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8) 한국거래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7%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 기타

소득세 세부세목 중 주요 세목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전망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세는 2026년 6.4조원으로, 2025년(7.1조원) 대비 0.6조원($\Delta 9.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은행 수신금리의 하락세가 202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연간 이자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정부 예산안(6.0조원) 대비로는 0.4조원(6.7%)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5년 전망치가 정부 재추계 대비 0.3조원 높은 것 등에 기인한다.

배당소득세는 2026년 4.7조원으로, 2025년(4.4조원) 대비 0.4조원(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4.6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법인의 배당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소득세(5.3조원), 기타소득세(2.5조원), 퇴직소득세(1.3조원), 연금소득세(0.8조원)는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세입 여건의 개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법인세

2026년 법인세는 87.5조원으로, 2025년(83.9조원) 대비 3.6조원(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86.5조원)을 0.9조원(1.1%)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64.8조원으로, 2025년 대비 4.1조원(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예산안(63.4조원)을 1.4조원(2.2%)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원천분은 22.7조원으로 2025년 대비 0.6조원(△2.4%) 감소하며 정부 예산안(23.2조원)을 0.5조원(△2.1%)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5] 2026년 NABO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2026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83.9	86.5	87.5	3.6	4.3	0.9	1.1
- 신고분	60.6	63.4	64.8	4.1	6.8	1.4	2.2
- 원천분	23.3	23.2	22.7	△0.6	△2.4	△0.5	△2.1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5년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과 증권사의 영업이익의 전망 컨센서스⁹⁾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우선 2025년 상반기 법인실적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의 영업이익과 세전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8.0%, 7.1%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및 세전순이익률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법인 영업실적의 개선 추이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2025년 1~2분기 외감법인을 바탕으로 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법인세

9) 각 증권사에서 조회일 기준(2025.10.14.) 최근 3개월간 전망한 260개 비금융 상장법인의 2025년 영업이익 증감률 평균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감률을 전망한 값이다.

[표 26] 2025년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상장법인(한국거래소) ¹⁾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3	2024	2025 상반기	2023	2024	2025 ²⁾	
						1분기	2분기
매출액증감률	0.3	5.4	5.2	△1.5	3.7	2.4	△0.7
영업이익증감률	△24.5	61.7	8.0	△24.6	36.9	-	-
세전순이익증감률	△32.4	83.6	7.1	△18.5	17.4	-	-
영업이익률	4.4	6.7	7.3	3.5	4.6	6.0	5.1
세전순이익률	2.9	4.9	6.0	3.8	4.3	7.7	5.3

주: 1)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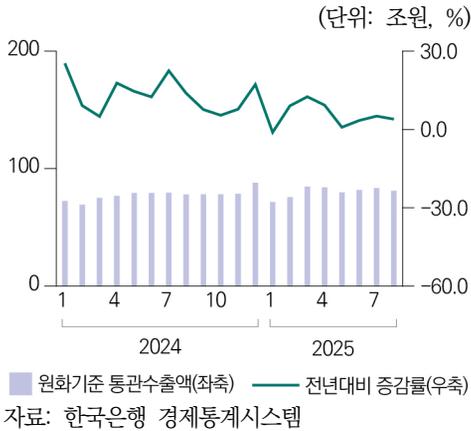
2) 기업경영분석 2025년 분기 실적은 외부감사대상 법인 대상 속보치 및 표본조사 결과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상반기 법인실적의 증가는 세계 경제 및 교역량 회복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상승 등 수출 증가에서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원화기준 통관 수출액¹⁰⁾은 2025년 8월 누적 기준 642.0조원(4,538억 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8월까지의 수출 증가를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선박, 자동차 등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역조건 또한 반도체 등 수출가격 상승에 따라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는데,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월까지 매일 전년동월 대비 0.9~4.0%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10) 원화기준 통관수출액은 월별 통관수출액(달러기준)에 월평균 환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29]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표 27] 2025년 8월 누적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품목	증감률 (전년 대비)	기여도
반도체	16.1	3.7
선박	23.9	0.1
바이오헬스	6.1	0.1
자동차	0.6	0.1
컴퓨터	2.2	0.0

주: 기여도는 수출 증감률과 비중을 곱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그림 30] 순상품교역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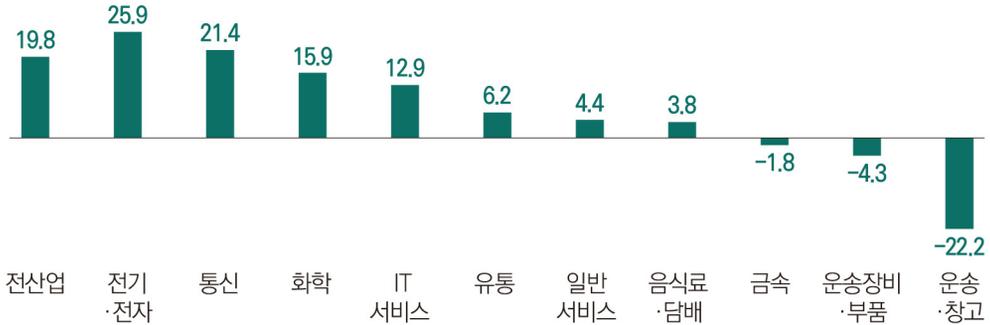
[그림 31] 반도체 가격(DDR4 8GB) 추이



이러한 상반기의 법인 영업실적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전망 컨센서스(연결 기준)는 2025년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4년부터 실적이 반등한 전기·전자(25.9%) 업종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통신(21.4%), 화학(15.9%), IT서비스(12.9%) 등 업종의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발효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4.3%), 철강금속(△1.8%) 등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32] 2025년 유가증권 상장법인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주: 조회일 기준 3개월간 비금융업 상장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각 증권사 전망치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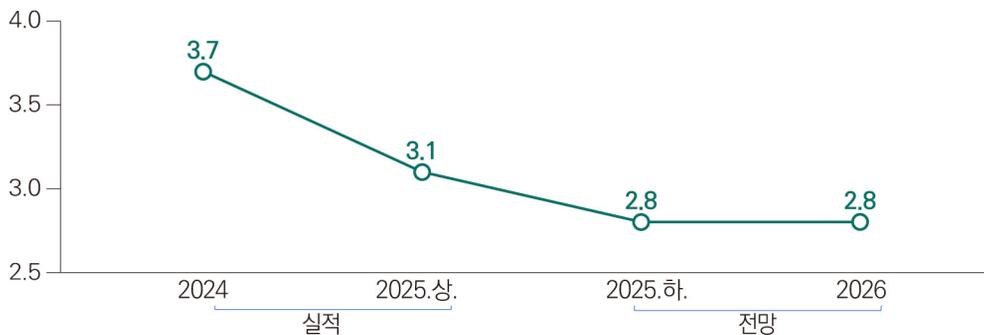
자료: FnGuide(조회일: 2025.10.14.)

또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대한 1%p 세율 인상도 2026년 세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2026년 세수 증가효과를 0.7조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되면서,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분이 당해연도 중간예납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6년 법인세 원천분의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 및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추가 인하 전망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0.6조원(△2.4%) 감소한 22.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원천분의 감소는 전반적인 법인세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실적 및 전망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3) 부가가치세

2026년 부가가치세는 86.7조원으로 2025년(81.7조원) 대비 5.0조원(6.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산안(86.6조원)을 0.1조원(0.1%)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28] 2026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81.7	86.6	86.7	5.0	6.1	0.1	0.1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부가가치세 전망의 전제인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명목 민간 소비는 대내 불확실성의 축소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개선,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명목 민간소비 상승세가 2024년 3.0%, 2025년 3.2%에 이어 2026년에는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¹¹⁾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이 있는 통관수출액은 2026년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가가치세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수입액은 유가¹²⁾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점차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 서 자본재·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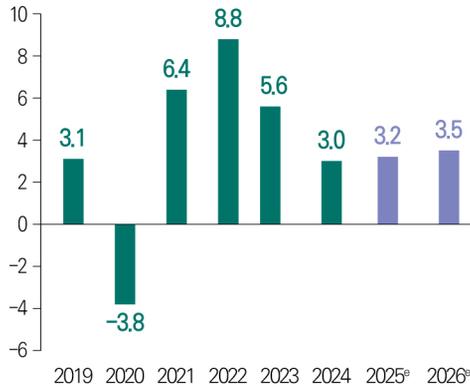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부가가치세

1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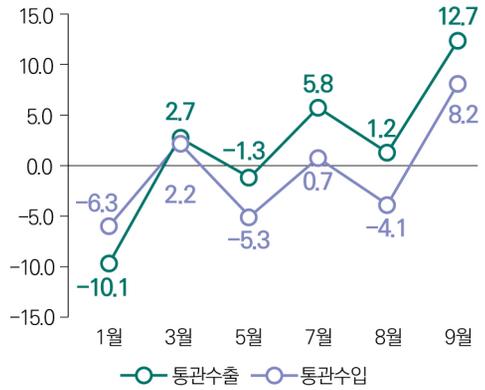
12) 두바이유 가격(\$/bbl): ('25.1Q) 76.9(전년동기 대비 △5.4%) ('25.2Q) 66.9(△21.5%) ('25.3Q) 70.1(△10.5%)

1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5년 8월)」, 2025.8.

[그림 34]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실적 및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그림 35] 2025년 통관수출입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 주: 1.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의 2025년 및 2026년은 전망치
- 2. 통관수출입은 달러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4) 기타 소비세수

2026년 기타 소비세수는 42.1조원으로 2025년 전망 37.6조원 대비 4.5조원(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42.6조원)을 0.5조원(△1.3%)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소비 여건 개선에 따른 과세대상 물품의 소비 증가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2026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37.6	42.6	42.1	4.5	12.0	△0.5	△1.3
개별소비세	8.3	9.4	9.1	0.8	10.0	△0.3	△2.7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6.2	3.0	23.0	△0.2	△1.3
관세	7.4	7.2	7.3	△0.1	△1.1	0.1	1.6
기타 ¹⁾	8.7	9.6	9.4	0.7	8.3	△0.2	△1.9

주: 1) 기타 항목은 교육세 및 주세로 구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개별소비세

2026년 개별소비세는 9.1조원으로 2025년(8.3조원) 대비 0.8조원(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9.4조원)을 0.3조원(△2.7%)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 물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발전용 연료 및 자동차에 적용된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 제도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적용 예정인 현행 탄력세율 인하 정책이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1월부터는 환원되는 것으

박성은 추계세제분석관(ixsepark@assembly.go.kr, 6788-4668) 개별소비세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교통·에너지·환경세
장설희 추계세제분석관(shjang@assembly.go.kr, 6788-4836) 관세

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¹⁴⁾ 자동차는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 등으로 인한 차량 판매의 증가 추세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25년 연중 적용되었던 세율 인하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3.5 → 5%)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담배의 경우는 최근 종류별 판매 추이 등을 감안하여 세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30] 주요 에너지 품목 소비량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bbl[등유·중유], 백만톤[액화천연가스·유연탄])

	2021	2022	2023	2024	2025 ^e	2026 ^e
등유	17.7	16.9	14.8	14.3	14.4	14.0
중유	10.0	9.3	8.7	6.6	5.7	5.6
액화천연가스	45.8	45.4	43.9	46.5	48.1	50.0
유연탄(발전용)	74.4	75.1	71.1	64.5	60.4	55.8

주: 2021~2024년 실적치, 2025~2026년 전망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에너지·환경세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6.2조원으로, 2025년(13.2조원) 대비 3.0조원(2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6.4조원)을 0.2조원(△1.3%) 하회하는 수준이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국제유가 하락 전망 등에 따라 2026년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유 소비량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6년부터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어 2021년 11월 이전 수준으로 탄력세율이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를 전망하였다.

14) 개별소비세율(원/kg): 고발열 발전용유연탄 41.6 → 49, 중발열 발전용유연탄 39.1 → 46, 저발열 발전용유연탄 36.5 → 43,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 10.2 → 12, 부탄 247.5 → 275(「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제4호라목 및 제5호)

[표 31]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bbl, %)

	2022	2023	2024	2025	2026
휘발유	88.4	90.4	95.0	97.0	99.6
(증가율)	(4.1)	(2.3)	(5.2)	(2.1)	(2.7)
경유	152.8	151.2	145.7	142.7	140.4
(증가율)	(△2.7)	(△1.0)	(△3.6)	(△2.1)	(△1.6)

주: 2022~2024년은 실적, 2025~2026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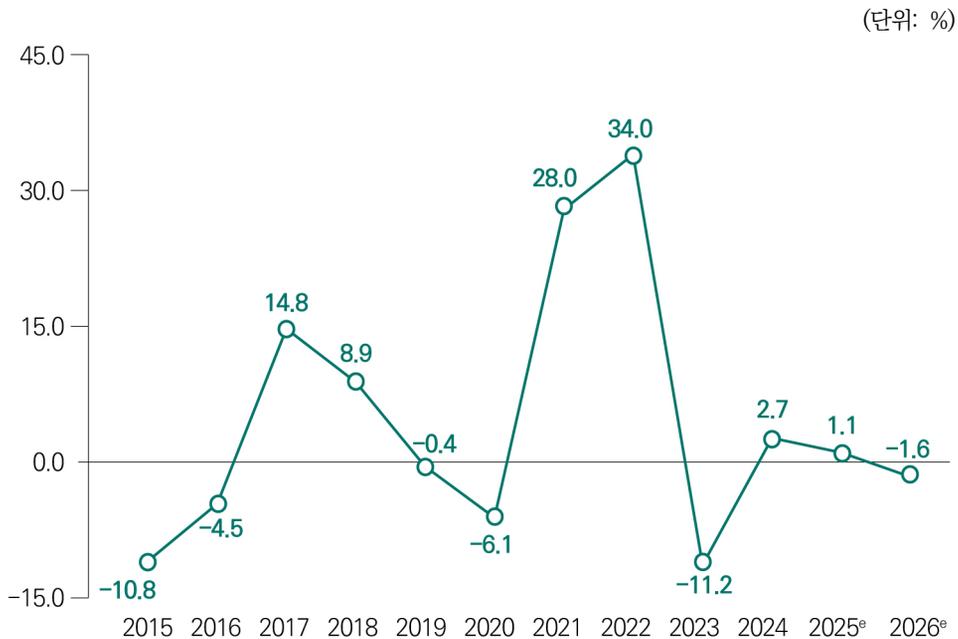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세

2026년 관세는 7.3조원으로, 2025년(7.4조원) 대비 0.1조원(△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7.2조원)을 0.1조원(1.6%)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관세수입은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이 2025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그림 36]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감률 실적 및 전망



주: 2025~2026년 통관수입 증감률은 NABO 전망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기타 자산세수

2026년 기타 자산세수는 43.2조원으로 2025년(39.7조원) 대비 3.5조원(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안(42.4조원)을 0.8조원(1.9%)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자산세수는 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상(0.05%p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2026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39.7	42.4	43.2	3.5	8.9	0.8	1.9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0	17.1	0.6	3.7	0.04	0.2
증권거래세	3.2	5.4	5.5	2.3	73.5	0.1	2.3
종합부동산세	4.4	4.6	4.7	0.2	5.6	0.03	0.6
기타 ¹⁾	15.7	15.4	16.0	0.3	2.2	0.6	3.9

주: 1) 기타 항목은 인지세, 과년도수입,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상속세 및 증여세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7.1조원으로, 2025년(16.5조원) 대비 0.6조원(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17.0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10.8조원으로 2025년(10.5조원) 대비 0.3조원(3.3%) 증가하나, 정부 예산안(10.9조원)을 0.1조원(△0.9%)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세는 6.2조원으로 2025년(5.9조원) 대비 0.3조원(4.3%) 증가하고, 예산안(6.1조원)을 0.1조원(2.2%)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철규 추계세제분석관(choi1009@assembly.go.kr, 6788-4838) 상속세 및 증여세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증권거래세
 신미정 추계세제분석관(mjshin@assembly.go.kr, 6788-4837) 종합부동산세

우선 2026년 상속세는 최근의 상속자산유형별 가액을 바탕으로¹⁵⁾ 자산유형별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금리 및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추이 등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고, 유가증권의 경우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가증권(지분증권·채권 등)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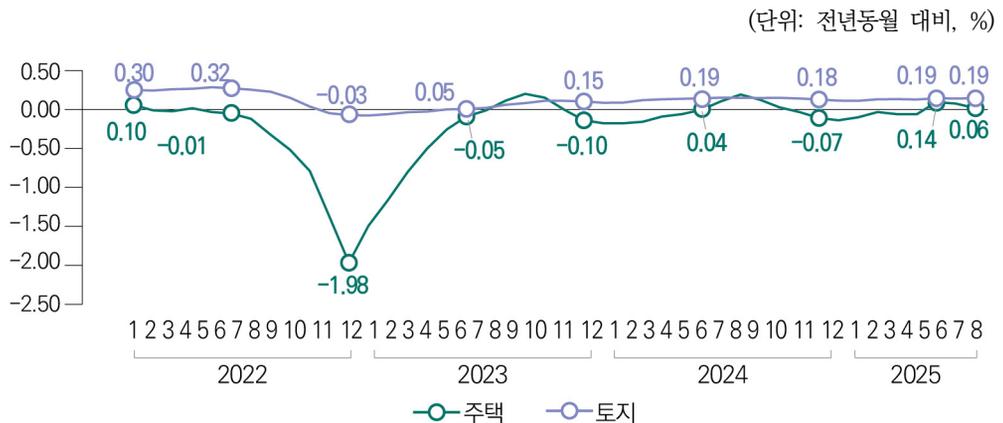
[표 33]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상속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토지	60,506 (28.4)	64,383 (24.3)	78,769 (12.6)	82,748 (16.0)	92,088 (20.7)	75,699 (20.5)
건물	69,566 (32.6)	116,484 (44.0)	153,266 (24.5)	198,455 (38.4)	202,166 (45.5)	147,987 (40.0)
유가증권	36,816 (17.3)	28,616 (10.8)	284,616 (45.5)	149,479 (28.9)	58,285 (13.1)	68,299 (18.5)
금융자산	31,491 (14.8)	38,081 (14.4)	55,341 (8.8)	59,536 (11.5)	62,894 (14.2)	49,469 (13.4)
기타자산	15,016 (7.0)	16,908 (6.4)	53,757 (8.6)	27,0742 (5.2)	28,719 (6.5)	28,288 (7.7)

주: 유가증권의 5년 평균은 2022년 특이치를 제외하고 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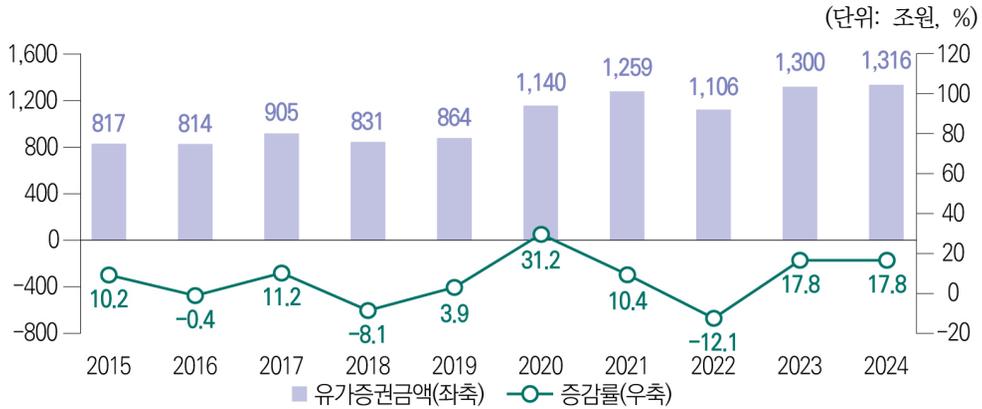
[그림 37] 2022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변동률 추이



자료: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상속재산가액의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평균 구성비는 건물, 토지,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순이다.

[그림 38] 2015~2024년 유가증권 변동률 추이



주: 유가증권은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상 금융자산 가운데 채권, 지분증권 등의 합으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전망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최근의 증여재산의 유형별 가액을 기준으로¹⁶⁾ 향후 자산별 가격상승률 전망치와 함께 금리 및 부동산 매매가격과 증여거래 건수와의 상관관계¹⁷⁾ 등을 감안하여 전망하였다.

[표 34]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토지	74,561 (23.7)	81,673 (15.2)	80,402 (18.2)	66,970 (19.0)	38,543 (13.5)	68,430 (19.0)
건물	98,729 (31.4)	242,204 (45.0)	150,049 (34.0)	111,183 (31.6)	70,423 (24.6)	107,596 (29.9)
유가증권	48,371 (15.4)	68,963 (12.8)	70,496 (16.0)	58,953 (16.8)	61,866 (21.6)	61,730 (17.2)
금융자산	72,822 (23.2)	112,959 (21.0)	113,099 (25.6)	86,572 (24.6)	94,239 (32.9)	95,938 (26.7)
기타자산	19,671 (6.3)	32,300 (6.0)	26,901 (6.1)	28,224 (8.0)	21,268 (7.4)	25,673 (7.1)

주: 건물의 5년 평균은 2021년 특이치를 제외하고 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6) 증여재산가액의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평균 구성비는 건물, 금융자산, 토지, 유가증권, 기타의 자산 순이다.

17) 2019~2024년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률과 시장금리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0.801)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과 증여거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0.616)가 존재한다.

[그림 39] 부동산 증여거래 및 시장금리 추이



주: 시장금리는 회사채(3년, AA-, 민평) 기준

자료: 대한민국 법원(부동산 증여거래), 한국은행(시장금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권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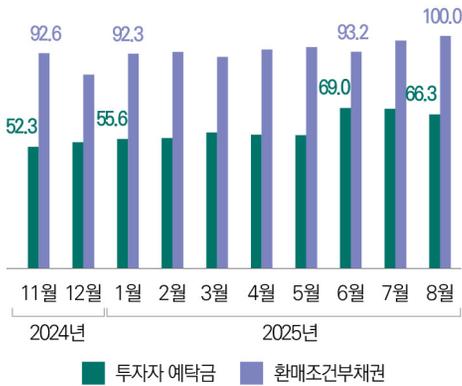
2026년 증권거래세는 5.5조원으로 2025년(3.2조원) 대비 2.3조원(7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5.4조원)을 0.1조원(2.3%)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증권거래세의 증가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0.05%p 인상되는 제도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세율은 2025년 0의 세율에서 2026년 0.05%로 상승하고 코스닥 등에 대한 세율은 2025년 0.15%에서 2026년 0.20%로 상승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2.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도적 요인과 함께 증권거래대금도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특히 국내외 금리 인하¹⁸⁾로 시장의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고, 최근과 같이 증시주변자금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등 투자 심리 개선이 이어지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8)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24년 11월 28일 3.00%, 2025년 2월 25일 2.75%, 5월 29일 2.50%로 인하되었다.

[그림 40] 주요 증시주변자금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5] 증권거래세율 연혁
(단위: %)

	유가증권	코스닥
2020년	0.10	0.25
2021~2022년	0.08	0.23
2023년	0.05	0.20
2024년	0.03	0.18
2025년	0	0.15
2026년 이후 (정부 세법개정안)	0.05	0.20

주: 유가증권 시장은 농어촌특별세(세율 0.15%)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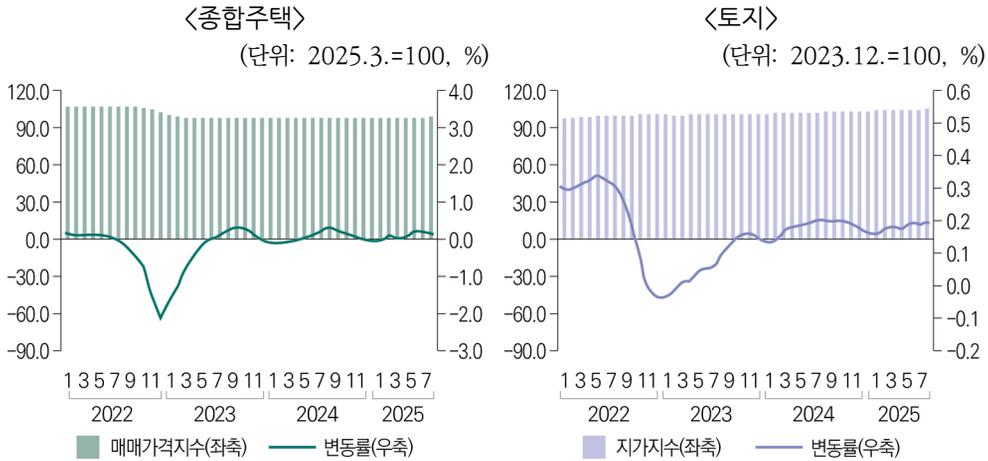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부동산세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4.7조원으로, 2025년(4.4조원) 대비 0.2조원(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4.6조원)을 0.03조원(0.6%)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2026년 공시가격 변동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202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전망한 뒤, 종합부동산세 분납분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3년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후 최근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공급 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다. 지가의 경우 2023년 2분기 이후 소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2025년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림 41]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



주: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년도는 종합주택은 2025년 3월(2025.3=100), 토지는 2023년 12월(2023.12=100)이며, 변동률은 전기대비 변동률을 의미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3.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396.1조원)은 정부의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390.2조원)보다 5.9조원(1.5%)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6년 거시경제 전망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전망¹⁹⁾ 3.8% 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GDP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민간소비 증가율 1.7%, 설비투자 증가율 1.7%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율 1.6%, 설비투자 증가율 1.5%로 전제하고 있다. 대외경제 지표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통관수출 및 통관수입 증가율을 각각 전년 대비 Δ 1.0%, 0.8%로 전망한 데 비해, 정부는 각각 Δ 0.5%, 0.5%로 전제하였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19) 이하 2026년 정부의 경제지표 전망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인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지표는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과 KDI의 경제전망(2025.8.)을 종합하여 반영함에 따라, 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과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고용지표 역시 국회예산정책처는 명목임금 상승률을 2025년 3.3%, 2026년 3.2%로 전망하였지만, 정부는 명목임금 상승률을 2025년 3.2%, 2026년에는 2.5%로 예상하는 등 국회예산정책처 전망보다 보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26년 3.1조원)가 정부(2.5조원)보다 높게 추계한 것도 전망 차이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표 36] 2026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4 실적	2025전망		2026전망	
		정부 (‘25.8.)	NABO (‘25.9.)	정부 (‘25.8.)	NABO (‘25.9.)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6.2 (2.0)	3.2 (0.9)	3.2 (1.0)	3.8 (1.7)	4.0 (1.9)
민간소비	1.1	1.3	1.3	1.6	1.7
설비투자	1.7	2.0	2.8	1.5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2.4	2.8	2.7	3.1
경상수지	990	950	1,100	800	900
통관수출 증가율	8.1	0.2	0.3	△0.5	△1.0
통관수입 증가율	△1.7	△0.6	△1.6	0.5	0.8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0	2.0	1.9	1.9
취업자수 증감	15.9	19.7	17.5	17.3	16.1
명목임금 상승률	2.9	3.2	3.3	2.5	3.2

주: GDP 구성요소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양 기관의 세목별 전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망의 차이는 주로 소득세(4.6조원)에서 발생하며, 법인세(0.9조원)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132.1조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36.7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예산안보다 4.6조원(3.5%)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소득세에서의 전망 차이는 주로 근로소득세(정부 예산안 대비 3.8조원)에서

발생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망 차이는 임금상승률 등 고용지표에 대한 전제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는 2026년 취업자 수 증가율을 0.6%로 동일하게 전제하여 전망하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3.2%로 2025년(3.3%)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2026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2.5%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전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근로소득세는 72.3조원으로 2025년 전망 대비 4.7조원(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68.5조원으로 2025년 정부 재추계 대비 0.9조원(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²⁰⁾ 이는 근로소득세의 최근 증가 추세(최근 10년간 연평균 10.5% 증가)를 감안할 때 보수적으로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 예산안은 2025년 정부 재추계(83.6조원) 대비 2.9조원(3.4%) 증가한 86.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법인세를 2025년 전망(83.9조원) 대비 3.6조원(4.3%) 증가한 87.5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정부 예산안 보다는 0.9조원(1.1%)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2025년 하반기 법인실적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점인 2025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실적을 바탕으로 전망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반도체 등 법인세 비중이 큰 업종의 주요 기업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에서 나타난 실적 증가세 확대²¹⁾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또한, 2025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안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0.7조원의 세수 증가효과를 추계한데 반해, 정부는 0.3조원 수준으로 추계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효과 추계시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시 가결산 비중을 예년의 평균 수준으로 반영한데 반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개정세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산정시 가결산이 의무화된 것²²⁾을 고려하여 가결산 비중을 상향하여 추계하였다.

20) 한편, 2026년 정부 예산안의 근로소득세(68.5조원)는 2025년 추경예산(64.7조원) 대비 3.7조원(5.7%)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21) 반도체 업종내 주요 법인 '25.3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잠정치) 12.1조원(전년동기 대비 31.8%), SK하이닉스(잠정치) 11.4조원(61.9%)

22)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5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포함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등)에 속한 기업은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표 37]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비교 (B-A)	
	2026 예산안 (A)	증감률 (2025 전망 ¹⁾ 대비)	2026 전망 (B)	증감률 (2025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90.2	5.5	396.1	6.4	5.9	1.5
일반회계	378.6	5.7	384.0	6.5	5.4	1.4
내국세	343.9	5.0	349.6	5.9	5.7	1.6
1. 소득세	132.1	2.9	136.7	5.5	4.6	3.5
2. 법인세	86.5	3.5	87.5	4.3	0.9	1.1
3. 상속세 및 증여세	17.0	5.3	17.1	3.7	0.04	0.2
4. 부가가치세	86.6	7.0	86.7	6.1	0.1	0.1
5. 개별소비세	9.4	13.4	9.1	10.0	△0.3	△2.7
6. 증권거래세	5.4	71.3	5.5	73.5	0.1	2.3
7. 인지세	0.8	△0.3	0.8	△0.8	△0.01	△0.9
8. 과년도수입	6.1	0.0	6.3	△1.2	0.1	2.3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25.5	16.2	23.0	△0.2	△1.3
관세	7.2	△2.4	7.3	△1.1	0.1	1.6
교육세	6.4	11.5	6.2	13.3	△0.2	△3.2
종합부동산세	4.6	0.9	4.7	5.6	0.03	0.6
특별회계	11.6	△0.5	12.1	3.5	0.5	4.2
주세	3.1	△1.8	3.2	△0.4	0.03	0.8
농어촌특별세	8.5	0.03	9.0	4.9	0.5	5.5

주: 1) 2024년 9월 정부가 재추계한 전망치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Ⅲ. 2025~2029년 중기 국제수입 전망

1. 2025~2029년 중기 국제수입 전망의 전제

실질GDP는 2025~2029년 중 연평균 2.0% 성장할 예상으로 이전 5년(2020~2024년)의 2.7%¹⁾에 비해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소비 등 내수는 추세보다 높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겠으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순수출이 추세보다 낮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실질GDP의 예상 성장경로는 전망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다가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 등 내수는 추세보다 높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겠으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순수출이 추세보다 낮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통관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 미·중 무역갈등,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통관수출의 2025~2029년 중 연평균 성장률은 1.1%로 예상된다.²⁾ 그리고 통관수입은 내수성장률 추이와 낮아진 유가 전망을 반영하여 2025~2029년 중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전망하고 있다.

명목GDP의 2025~2029년 중 성장률은 3.8%로 예상한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동기간 중 2% 내외에서 안정되겠으나, 2027년 이후 세계수입 수요가 회복되며 국제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GDP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2025~2029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0% 상승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 및 국제 원유가격의 안정세는 물가상승률의 둔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 가격상승 가능성 등으로 물가가 재차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1) 2020년말 대비 2024년 실질GDP의 성장률 평균을 의미한다.

2) 통관수출의 경우 중기 전망치(1.0%)와 지난 5년 실적치(5.9%)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 실적치 중 2021년(25.7%)이 예외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평균 성장률은 0.3%다.

취업자 수는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13.5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세가 지속되고, 노인 돌봄 관련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등의 영향으로 연간 1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단, 2027~2029년 기간의 취업자 수 전망에는 정부가 2026년 이후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3.2%로 전망된다. 동 기간 중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인 돌봄 관련 일자리 등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일자리 구성 변화는 명목임금 상승을 다소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5~2029년 중 연평균 2.4%로 전망된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2025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연평균 2.4%로 예측되고 2026년에는 올해 수준인 연평균 2.4%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 인하,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등으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단기적으로 국고채금리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한 금리의 하락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 지속 등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8년 이후 국고채금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물가안정 등에 따라 느리게 하향 안정화되어 2029년 2.4%로 예측된다.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는 2025~2029년 중 연평균 2.9%로 전망된다. 회사채금리는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세에 따라 2025년에는 연평균 3.0%를 기록하고 2026년에는 연평균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후 회사채금리는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2027년 2.9%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29년 2.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중기 NABO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감률 ¹⁾ (25~29년)
실질GDP 성장률	1.0	1.9	2.1	2.0	1.9	2.0
명목GDP 성장률	3.2	4.0	3.9	3.7	3.5	3.8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2	2.1	1.8	1.6	1.6	1.8
통관수출 증가율	0.3	△1.0	1.4	2.1	2.0	1.1
통관수입 증가율	△1.6	0.8	2.1	2.2	2.1	1.8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9	2.0	2.0	2.0	2.0
취업자수 증가(만명)	17.5	16.0	11.4	11.6	10.8	13.5 ²⁾
명목임금 상승률	3.3	3.2	3.3	3.3	3.3	3.2
국고채금리(3년)	2.4	2.4	2.5	2.5	2.4	2.4 ²⁾
회사채금리(3년, AA-)	3.0	2.8	2.9	2.9	2.8	2.9 ²⁾

주: 1)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2) '25~'29년의 연평균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2.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가. 세목별 전망 방법

주요 세목별로 2025~2029년간 중기전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세목별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세부세목별로 전망모형에 사용한 변수의 경우 명목GDP와 그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취업자수와 사업소득 신고율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소득세도 임금근로자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과 같은 고용관련 변수를,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한 전망치에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및 보육수당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신고분 법인세는 명목GDP 성장률, 설비투자, 통관수출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천분 법인세는 일반법인(금융업 제외)의 금융자산, 회사채금리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도별 법인세 전망치는 신고분 및 원천분 법인세 추정치를 합산한 후, 법인세율 인상 등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명목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한 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 등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세목별 전망모형을, 과년도수입은 명목GDP 성장률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다른 세목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다.

[표 39] 세목별 중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민간소비, 취업자수, 사업소득 신고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양도소득세: 금리, 명목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근로소득세: 임금근로자수, 명목임금 상승률, 실효세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이자·배당소득세: 금리, 명목GDP, 민간소비, 환율, 개인 채권 잔액, 개인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분: 명목GDP, 원/달러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교역조건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원천분: 명목GDP, 비금융법인의 자산, 회사채금리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기타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 토지 등 자산종류별 상속 및 증여가액 비중과 자산종류별 가격 상승률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상속세의 경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고려하여 전망 ○ 개별소비세: 품목별로 명목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모형(유류분, 자동차분 등)이나 최근의 출고량 추이(담배분)를 반영하여 전망 ○ 증권거래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거래대금을 명목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시장별 세율 반영하여 전망 ○ 인지세: 명목GDP 성장률, 원화대출금 증가율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 최근 자동차 보급 추세 및 경제여건 등을 반영한 휘발유·경유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에 유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전망 ○ 관세: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최근의 실효세율 추이,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망

나.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2025~2029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하여 동 기간 명목GDP의 성장률(연평균 3.8%)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25년 372.3조원에서 2026년 396.1조원으로 23.8조원(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과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의 증가 추세 지속 등에 따라 소득세(전년 대비 7.2조원), 부가가치세(5.0조원), 법인세(3.6조원) 등 주요 세목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2026년 기준 0.7조원 추계),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상(2.2조원) 등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3.1조원)도 국세수입의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7년 이후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2027년 5.2%에서 2028년 4.6%, 2029년 4.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세법개정안의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가 2027~2029년간 연도별로 8.5~8.7조원으로 확대³⁾됨에도 불구하고, 명목GDP 성장률이 2027년 3.9%에서 2029년 3.5%로 둔화⁴⁾된 것에 기인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025년 129.5조원에서 2029년 162.1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중 소득세는 주요 세부세목인 근로소득세가 고용지표의 개선에 따라 증가하는 가운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세는 전망기간 중 임금근로자 수(연평균 0.9%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률(연평균 3.2% 상승) 등 고용시장 지표 개선에 따라 연평균 6.6%의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는 내수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연평균 4.9%의 증가가 전망된다. 양도소득세는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을 전제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6년 4.1%에서 2029년 5.7%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연평균 4.9%)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2025년 83.9조원에서 2029년 100.6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3) 금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항목인 법인세율 인상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의 경우,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및 금융보험업자의 2026년 귀속소득이 2027년에 신고·징수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4)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27년) 3.9, ('28년) 3.7, ('29년) 3.5

전망이다. 전망기간 중 법인세의 증가는 주로 법인세 신고분 증가에 기인하는 가운데, 법인세 원천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법인세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법인세 신고분 세수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중간예납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후, 2027년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 증가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9.6%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하여 세수 증가세가 연평균 4.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인세 원천분은 2026년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2.4% 감소한 후, 2027년 이후에는 금리수준이 반등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인 금융자산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1.2%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 전체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2025년 81.7조원에서 2029년 100.6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망기간 중 민간소비(연평균 3.7% 증가) 및 통관수입(1.8%)의 증가 등 관련 경제지표의 개선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 세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기타 소비세수는 내수회복에 따른 과세대상 품목의 소비 증가와 함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및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으로 2025년 37.6조원에서 2029년 45.5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자산세수도 자산가격의 상승과 함께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인상 등의 효과로 2025년 39.7조원에서 2029년 46.5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0] 2025~2029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²⁾ (‘25~’29년)
총국세	372.3 (10.6)	396.1 (6.4)	416.7 (5.2)	435.7 (4.6)	455.3 (4.5)	5.2
소득세	129.5	136.7	144.3	152.8	162.1	5.8
법인세	83.9	87.5	93.9	97.3	100.6	4.6
부가가치세	81.7	86.7	91.5	96.1	100.6	5.4
기타 ¹⁾	77.2	85.3	87.1	89.6	92.0	4.5
- 기타 소비세수	37.6	42.1	44.2	44.9	45.5	4.9
- 기타 자산세수	39.7	43.2	42.9	44.7	46.5	4.1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 세목의 합계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1]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치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6~'29년	
						합계	연평균 ¹⁾
세법개정안 계		30,512	85,723	85,064	87,268	288,567	72,142
세수 증가	법인세율 인상	7,136	44,421	44,421	44,421	140,399	35,100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상	21,921	24,844	25,938	27,052	99,755	24,939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	15,280	16,079	16,735	48,094	16,031
세수 감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2,900	△2,877	△2,850	△8,628	△2,876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	△1,039	△3,045	△3,045	△7,129	△2,376

주: 1. 누적법 기준

1) 2026년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평균 세수효과는 '27~'29년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25~2029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국세수입은 2025년 372.1조원⁵⁾에서 2029년 457.1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전망과 연도별로 △1.7~5.9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2025~2029년간 총 10.5조원⁶⁾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양 기관의 전망 차이는 중기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6년의 세수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점과 중기 경제성장의 흐름에 대한 전망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2025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와 정부의 추경예산의 차이는 0.2조원 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202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는 정부 전망을 5.9조원 상회하는데, 이는 2026년 명목GDP 성장률 등 경제전망에 있어서 국회예산정책처(4.0%)가 정부(3.8%)보다 높게 전망하는 등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수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3.1조원)가 정부(2.5조원)보다 높게 추계한 점에도 일부 기인한다.⁷⁾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전망을 2027년 4.6조원, 2028년 1.5조원 상회하는 등 전망의 차이가 축소되다가, 2029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 전망을 1.7조원 하회한다. 이는 2027~2029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 추계치(25.8조원)가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치(23.9조원)보다 높지만,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명목GDP 성장률 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⁸⁾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정부 전망을 연도별로 0.3~0.6%p 하회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5) 이하 2025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5.6.)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당시 2025년 국세수입을 369.9조원으로 전망하였다.

6) 정부의 2025년 재추계 기준으로는 12.6조원 상회할 전망이다.

7) 2026년 전망의 차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II.3.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p.61)를 참조하기 바란다.

8) 명목GDP 성장률(%): (NABO) '27년 3.9, '28년 3.7, '29년 3.5 vs. (정부) '27년 3.9, '28년 4.0, '29년 4.1

[표 42]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단위: 조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25~'29년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72.3 (10.6)	396.1 (6.4)	416.7 (5.2)	435.7 (4.6)	455.3 (4.5)	(5.2)	
	명목GDP 성장률	3.2	4.0	3.9	3.7	3.5	(3.8)	
정부	국세수입	추경예산기준	372.1 (10.6)	390.2 (4.9)	412.1 (5.6)	434.1 (5.4)	457.1 (5.3)	(5.3)
		재추계기준	369.9 (9.9)	390.2 (5.5)	412.1 (5.6)	434.1 (5.4)	457.1 (5.3)	(5.4)
	명목GDP 성장률	3.2	3.8 ¹⁾	3.9	4.0	4.1	(4.0)	
NABO - 정부	추경예산기준	0.2	5.9	4.6	1.5	△1.7	[10.5]	
	재추계기준	2.4	5.9	4.6	1.5	△1.7	[12.6]	

주: 1.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 []는 '25~'29년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간 국세수입 전망차이의 총합

1) 명목GDP 성장률은 정부 예산안 부속서류의 2026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표 43]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6~'29년	
					합계	연평균
국회예산정책처(A)	30,512	85,723	85,064	87,268	288,567	72,142
정부(B)	25,167	80,257	79,570	79,548	264,542	66,136
차이(A-B)	5,345	5,466	5,494	7,720	24,025	6,006

주: 누적법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NABO 국제수입 전망: 2025~2029

발간일 2025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tel 02·2079·9200)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834)

ISSN 3058-5961

© 국회예산정책처, 202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532-001981-14

ISSN 3058-5961

